



4. 재산관리 위원회 조직

1987년 1월 11일에 개최된 602회 제1차 임시당회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회재산관리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이기봉 목사

위 원 박종길 방태호 안문식 양해술 전성문 배경학 김번 소병준

양일용 신동욱 정주성

」

교회가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5. 오후예배 및 2부 예배

1989년 10월 30일 개최된 제622회 당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저녁예배시간을 오후예배로 변경함에 제직회에 부의하여 의견을 참작키로 하다.」

그 후 1989년 11월 5일에 개최한 제548회 정기제직회에서 저녁예배시간을 오후예배로 시간을 변경하여 통과시켰다. 1989년 11월 19일 주일 처음으로 오후 2시에 오후 찬양예배를 드렸다.²⁴⁵ 이후로 시간은 다소 변경이 있으나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91년 1월 27일에 개최된 제629회 제1차 임시당회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2부 예배는 4월부터 실시키로 하다.

시간배정 1부 예배 10시 20분

2부 예배 11시 30분」

이 결의에 의하면 주보 제82권 제14호(1991. 4. 7)를 보면 결의한대로 오전

245 주보 제39권 제47호(1989. 11. 29).



10시 20분에 1부 예배, 오전 11시 30분에 2부 예배 순서를 볼 수 있다. 교인들이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 출석 교인수도 다소 많아지게 되었다.

6. 경산교회 설립 80주년 기념행사

경산교회가 설립된 지 80주년을 맞아 교회설립기념일인 1989년 9월 16일의 다음날인 9월 17일 주일오전 11시에 주일 낮 예배와 겸하여 교회설립 8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갖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날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전하였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도 별도의 기념품을 전하여 설립 80주년을 축하하였다.²⁴⁶ 그러나 근속자 명단이나 기념품 내용 등 기타 상세한 기록이 없어 아쉽다. 주일 밤 예배에는 80주년 축하 찬양예배를 드렸다.

<주일 낮 예배순서>

(교회설립 80주년 기념감사예배)

오전 11시

사회 : 이기봉 목사

목 도	(송 영)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찬 송	1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38	다같이
찬 송	245장	다같이
기 도		양일용 장로
성경봉독	삼상 7:12~14	이기봉 목사

246 경산교회 제직회, “제547회 정기제직회록” (1989. 9. 3).



찬 양		성가대
말씀증거	예벤에셀	이기봉 목사
교회약사소개		김 번 장로
양해술 장로 은퇴식		
장기근속자 표창		
찬 송	460장	다같이
현 금		다같이
봉헌기도		사회자
광 고		사회자
찬 송	434장	다같이
축 도		이기봉 목사
폐 회	(오늘밤에 다시 만납시다)	성도의 교제

<주일 밤 예배순서>

(교회설립 80주년 축하 찬양예배)

오후 7시 30분 사회 : 이기봉 목사

북 도	(송 영)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찬 송	40장	다같이
요리문답	제34문	다같이

문 :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이뇨?

답: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없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
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호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



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요일 3:1~2, 롬 8:17)

기 도		김형렬 집사
성경봉독	시96 : 1~8	이기봉 목사
말씀중거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기봉 목사
찬양순서		제1성가대, 제2성가대
찬 송	495장	다같이
헌 금	(헌금 위원)	다같이
봉헌기도		이문수 집사
광 고		사회자
찬 송	502장	다같이
축 도		이기봉 목사
폐 회	(수요일 밤에 다시 만납시다)	성도의 교제

7. 경산유치원 폐원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찍이 1923년에 유치원을 경영한바 있고 1954년에 다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경산유일의 경산유치원을 폐원키로 1989년 11월 12일에 개최된 당회에서 결의 되었다. 개인적으로 운영할 희망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여 1개월의 기간을 두었으나 경영의 희망자가 없어 결국 폐원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 재학 어린이들이 많이 줄게 되고 시설이 낙후하여 개선하고 현대화가 필요했으나 자금이 없어 부득이 폐원하게 되었으니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8. 교회부지확장 및 신교육관 건립

경산 삼북동 88번지의 가옥 69평을 교회부지로 구입하기로 1990년 4월 1일에 개최된 제550회 제1차 임시제직회에서 결의되어 중개업을 하는 이진기 집사와 재정부에 일임하여 구입함으로 교회부지를 넓혔다. 가격은 평당 80만



원 이었다.²⁴⁷

또한 1993년 4월 18일에 개최된 제624회 제2차 임시당회록에 의하면 교회 동편 삼북동 86번지 대지 13평을 교회서 구입하기로 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신교육관으로 건평 60평 철골 조립식 2층 건물을 건립하였다.

9. 이기봉 목사 내외 성지순례 및 미주여행

① 성지순례

이기봉 목사 내외는 1990년 6월 6일부터 6월 27일 까지 21일간 성지순례의 길을 떠났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순례의 새로운 감격으로 이어갔으리라 짐작된다. 경비는 교회와 청년회에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마련하였다.²⁴⁸ 이기봉 목사 부재 동안의 주일예배 사회는 전성문, 배경학, 박종길 장로가 맡고 설교는 대구신학교장 이종호 목사를 청하였다. 수요일 저녁예배의 사회와 설교는 방태호, 이정우, 송석근, 양일용 장로가 맡았다.²⁴⁹

② 미주여행

이기봉 목사가 부임한지 10주년과 동시에 60회 회갑기념으로 한 달간 미주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제직회(1996. 5. 5)에서 결의하고 부부동반 여행경비 5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²⁵⁰

이기봉 목사는 1996년 6월 11일에 출국하여 7월 8일에서 13일 사이에 귀국하여 7월 14일 주일에 설교를 하였다.

247 경산교회 당회, “제624회 제1차 임시당회” (1990. 3. 11).

248 경산교회 당회, “제625회 당회록” (1990. 4. 29), 경산교회 제직회, “제551회 제직회록” (1990. 5. 6).

249 경산교회 당회, “제625회 임시당회록” (1990. 5. 20).

250 경산교회 당회, “제662회 정기당회록” (1996. 4. 21).

10. 경산교회 참빛 찬양단 조직

참빛 찬양단은 청년회에서 당회에 신청하여 1992년 6월 28일 당회의 허락으로 조직되었다. 참빛 찬양단 조직 목적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부흥을 위하는데 있다.

1992년 12월 15일에 조직하여 초대단장에 신동윤 집사가 임명되었다. 고문에는 정주성 장로, 후원회장에 박의순 집사, 지도에 임성호 교육전도사가 맡았다. 주일학교 청년대학부 예배와, 월 1회 금요일 심야기도회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다.

참빛 찬양단 내규는 다음과 같다.

<경산교회 참빛 찬양단 내규>

1. 명 칭 : 본 찬양선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교회에 속해있으며 “경산교회
참빛 찬양단”이라 한다.

2. 목 적 : 본 참빛 찬양단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찬양을 인도하며 교회
의 부흥을 위해 봉사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자라나는 후배들
에게 본을 보일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조 직 : 본 찬양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부 : 고문 1명, 단장 1명, 재무 1명을 두며 찬양단의 운영 및 홍보와 재정일
체를 담당한다.

2) 지도부 : 찬양단의 영적 향상을 위한 경건훈련과 음악적 기술향상을 지도 감독
한다.

3) 찬양부 : 찬양을 실제로 행하는 단원들로서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노래담당 : 공교한 찬양을 부른다.



- * 연주담당 : 노래의 반주일체를 담당한다.
- * 음향담당 : 장비일체의 관리와 설치 및 음향을 담당한다.
- * 악보담당 : 필요한 악보의 복사 및 보관을 담당한다.
- * 봉사담당 : 간식 및 봉사의 일을 담당한다.

4. 단원

- 1) 단원의 자격은 현재 경산교회에 출석중인 세례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선교에 비전과 사명이 있는 자로 준비되고 헌신된 자. 음악적 기본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2) 단원의 입단은 기존단원의 결원, 또는 필요시 찬양단 전체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 3) 단원은 본 찬양단 모든 행사와 연습 및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 4) 단원은 지도부의 영적, 음악적 지도에 순종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개인의 영적 성숙과 음악적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5) 단원으로서 본 찬양단 내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찬양단의 내적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회의를 통해 적절히 징계할 수 있다.
- 6) 본 찬양단의 헌신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활동한다.

5. 집회

- 1) 전체회의 : 필요시 후원부 혹은 지도부 및 단원의 2/3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소집하며 본 찬양단의 중요사업, 단원의 탈퇴 및 영입, 정관의 개정 등을 참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정기모임 : 매주 토요일, 주일 및 기타교육을 위한 모임
- 3) 분기회 : 분기별 모임으로 회계보고 및 기타토의를 갖는다.
- 4) 임시모임 : 위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에 의해 모인다.



6. 재정 : 본 찬양단의 재정 수입은 후원회비, 교회보조금, 또는 찬조금 등으로 총당한다.

11. 경산 사랑의 집 운영

경산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또한 지역을 섬기는 취지로 사랑의 집을 운영키로 하였다. 1995년 10월 22일에 개최된 제658회 당회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경산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하여 장소 및 재정일부 지원 허락키로 하다. 단 봉사는 자원봉사로 구성하되 꽉은애 집사가 경산시와 협의하여 운영키로 하다.」

1996년 1월 1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65세 이상 불우 남녀노인 120명이 참석하였고 자원봉사자가 25명 출석하였다. 새예배당 건축기간을 제외하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식사시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식사를 하여 전도에 힘을 기울였다.

12. 선교 사역

그동안 선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선교비를 보조해 오던 중 경청노회 파송선교사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선교사역중인 경산교회 제20대 위임목사인 이만천목사의 장남 이은택 선교사에 대해 1994년 3월부터 중점적으로 후원을 해왔다. 그런 중 1996년 6월 23일 개최된 선교실행위원회에서 인도 선교사로 현지 김홍조 평신도 선교사를 택하였다. 김홍조 선교사는 태권도 교관 이였다. 인도 현지 교회 3층(건평 10평)을 전세 750만원에 월세 25만원을 전담키로 하였다. 그리고 현지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로 하고 현지 목사를 존 요셉(49세, 1996년)으로 정하였다.²⁵¹

그 후 1997년 6월 15일 인도현지에서 세례식을 거행하기 위해 이기봉 목사,

251 경산교회 선교 실행위원회, “제55회 실행위원회 회의록”(1996. 8. 11).



김번, 신동욱 장로가 현지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받은 사람은 24명, 유아세례 4명이다.²⁵² 김홍조 선교사에 대한 지원은 1997년 12월까지 이어졌다.²⁵³

이후 1998년 6월 21일 인도의 최도웅 장로와 협의하여 인도선교를 추진키로 하였다.²⁵⁴ 최도웅은 평신도 선교사로써 경청노회파송 선교사이다. 경산교회에서 최도웅 평신도 선교사를 협력선교사로 하여 인도선교를 계속한 것이다.

13. 총동원 주일

전도는 우리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해야겠지만 이기봉 목사 목회시절에는 평소에도 꾸준히 전도하였으나 해마다 특정한 주일을 정하여 총동원 주일로 하여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온 교인이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총동원 주일에는 결신자와 낙오자, 불신가정이 함께 모였다. 그날에 결신자에게는 타월 한 장씩 선물하였고 모든 교인과 새신자에게는 찹쌀떡을 선물하였다.²⁵⁵

14. 기타

① 시설의 확장

1970년 7월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종전의 선풍기보다 여름철 예배가 수월하게 되고 피아노를 구입하여 주일학교 고등부, 중등부, 유치부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96년 3월에는 신관 1층과 2층에도 에어컨을 설치하고 1994년 11월에는 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교회사설이 더욱 확충되었다.²⁵⁶

252 경산교회 선교 실행위원회, “제62회 실행위원회 회의록”(1997. 7. 20).

253 경산교회 선교 실행위원회, “제63회 실행위원회 회의록”(1997. 11. 9).

254 경산교회 선교 실행위원회, “제66회 실행위원회 회의록”(1998. 6. 21).

255 경산교회 제직회, “제54회 정기제직회록”(1989. 5. 17).



또한 1995년 3월에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이던 임대차를 3월 말일부로 운행중지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기구 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② 담임목사 사택 아파트입주

그 당시 담임목사 사택은 교회구내에 있는 것이 상례였다. 전통적인 그자형 사택으로 사랑채가 담임목사의 서재, 목양실, 교역자실, 상담실, 응접실, 부홍 강사 숙소 등을 겸하여 사용하였다. 안채는 교회 여성도들이 수시로 출입하여 사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경산교회에서는 태성아파트 102동 903호를 교회에서 구입하여 경산교회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약 43평 정도이다.

1995년 5월 24일(수)에 입주하기로 하고 이날 친목 겸 잔치를 하기로 하였다.²⁵⁷

③ 코이노니아(Koinonia)의 밤

청대부 주최로 해마다 가을 어느 토요일 밤 우리교회 뿐만 아니라 인근교회 청대부 남녀 학생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드라마 상영, 합창, 뮤지컬, 간식, 식사 등으로 친교를 나누고 결속을 다졌다.

256 경산교회 제직회, “제552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1990. 7. 8), 경산교회 제직회, “제556회 제1차 임시제직회록”(1991. 3. 31), 경산교회 제직회, “제578회 정기제직회록”(1994. 11. 6), 경산교회 제직회, “제580회 정기제직회록”(1995. 3. 5).

257 경산교회 제직회, “제581회 정기제직회록”(1995. 5. 7).



제4장 이기봉목사 목회와 교회의 안정

제1절 이기봉목사 부임과 교역자 동정

1. 이기봉목사 부임

이기봉 목사는 이만천 목사 후임으로 1986년 11월 6일 경북 달성군 화원면 화원교회에서 경산교회로 부임하여 왔다.²⁴² 부임하기 전에는 대구신학교 전 교장 정규선 목사가 주일 낮 설교를 맡아 수고하였다.

이기봉 목사는 경산교회 제13대 위임목사로 1987년 2월 12일 오전 11시에 위임식을 거행하였다. 위임식에 대한 순서와²⁴³ 기타 기록 등 남아있는 자료는 없다.



이기봉 목사

2. 교역자 동정

(1) 남 부교역자

- ① 김복규 전도사가 1990년 12월 16일 부임하였다. 그 후 1991년 11월 19일 대구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1992년 9월 9일 경청노회에서 목사장립을 받고 부목사로 시무하였으며 1994년 4월에 사임하였다.
- ② 최춘수 목사는 1994년 9월 4일에 부목사로 부임하여 사역하다가 1995년 4월 30일 사임하여 부산 남부민중앙교회로 전임하였다.
- ③ 이경우 강도사는 1995년 8월 4일 부임하여 1995년 9월 6일 경청노회에서 목사장립을 받고 부목사로 시무하였으며 1996년 9월 30일에 사임하였다.

242 경산교회 제직회, “제[530회 제1차 임시제직회의록”(1986. 11. 30).

243 경산교회 당회, “제602회 제1차 임시당회록”(1987. 1. 11), 경산교회 제직회, “제531회 제2차 임시제직회록”(1987. 2. 4).



제3절 맷는말

이기봉 목사 목회시대는 전반적으로 안정기라고 하겠다. 교회당 확장공사 및 제반 기본적 시설의 확장 등이 이루어진 후였고 선교사역의 기초가 되어있어 인도선교에 힘쓰는 중 세 차례 방문하여 성례예식을 거행하며 선교사역지도 및 확인을 하였다.

이기봉 목사는 무리한 일을 하지 않으며 교회의 화평을 중요시하여 이 방면의 설교에도 힘을 기울였다. 새로운 교회당 건축을 위한 재정저축 등 모든 준비를 잘 해 두어 후일 새 예배당 건축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다. 6년 조기 은퇴하여 대전으로 이사하였다.



을계로 달려온 100년

성길으로 달려온 100년

제1장 박세봉목사 목회와 교회의 전환

제1절 박세봉목사 부임과 교역자 동정

제2절 박세봉목사 목회

제3절 특별전도사역과 태신자 전도

제4절 새예배당 건축

제5절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제6절 맺는말

제7편 교회의 전환기



제7편 교회의 전환기

경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구한말에 설립된 후 일제의 혹독한 압박과 때로는 내부의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부흥해 왔다. 교회가 3.1운동 때만해도 신자의 수는 적으나 사회를 이끌어 나갔으며 시련기에는 연단을 더하여 갈수록 믿음의 순수성을 돋보이게 하였다.

해방 후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교회의 물량적 성장에만 치우쳐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천박한 이 사상이 교회까지 침투되고 개신교신자는 늘었으나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은 커녕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즉 신앙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반면 생활과 의식은 따라 가지 못하는 한국적 신앙형태가 여기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일요일 기독교인(Sunday Christian)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믿음과 행동(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점차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성장 지상주의로 신앙의 순수성이 약화되었다. 한국교회는 교회 이기주의 때문에 교회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많았다.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양적성장 못지않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릴 때이다. 선교와 나눔과 섬김의 교회로 나가야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그래서 100주년 표어도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섬김으로 달려갈 100년”으로 정하였다.

설립 100년을 맞이한 경산교회는 안으로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열성과 믿음 그리고 기도, 밖으로는 빛과 소금으로 더욱 전도와 구제, 봉사에 힘쓰는 멋진 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매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면서…



제1장 박세봉목사 목회와 교회의 전환

제1절 박세봉목사 부임과 교역자 동정

1. 박세봉목사 부임



박세봉 목사

박세봉 목사는 이기봉 목사 후임으로 대구성일교회에서 1999년 4월 1일 부임하였다. 박세봉 목사 (1960. 7. 19 生)는 경북의성 출신으로 1978년 2월에 안계고등학교 졸업 후 1987년 2월에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2월 총신대학원을 졸업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1987년 7월부터 1988년 8월까지 대구 대성교회 교육전도사를, 1989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대구 성일교회 교육전도사, 강도사를 거쳐 부목사로 시무하였다.

1996년 8월부터 1998년 5월까지 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 of Wales(ETCW)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대학의 신학석사학위를 받고 1999년 4월 1일에 경산교회 제2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박세봉 목사는 공동의회를 거쳐 2000년 11월 23일 14시에 위임식을 거행하여 경산교회 제14대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이날 위임식과 함께 장로 및 집사와 권사 임직감사예배도 함께 드렸다.

위임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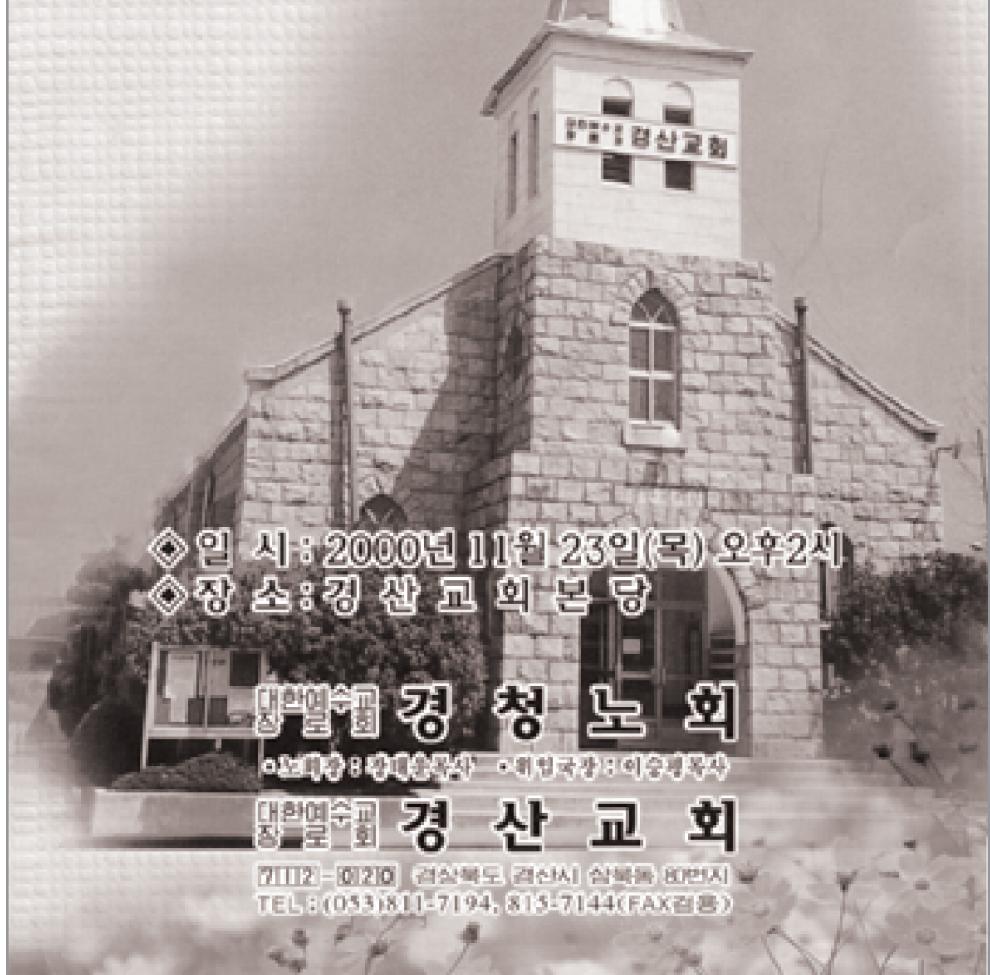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100년사



목사위임 및 임직감사 예배

목사위임·장로장립·집사취임·집사장립·권사취임



◆ 일 시 : 2000년 11월 23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경산교회 본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청노회

경상북도 경주시 | 회장: 이승만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 회장: 이승만 목사
TEL: (033) 811-7194, 813-7144(FAX)



사회 : 위임국장 이승만 목사
(경산남사찰장/경산동부교회)

I. 예배

목	도	(승 일)	다같이
기	월		위임국장
찬	술	(246집)	다같이

-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괴 출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시 늘 보호해주세요
-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현 디행기까지 늘 헌사합니다
-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성품과 구주와 많은 연약을 늘 좋아합니다
-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희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	도	(교회교인이종합 목사)
성 경 복 톡	창세기 21:22(구27)	(성경교회선교관 목사)
한	양	경산교회 친양대
설	교	하나님이 함께 하는자 (정동재발교회백화관 목사)

II. 위임식

사회 : 위임국장

서	약	위임국장
---	---	------

1. 위임받는 목사에게

- 귀하가 출발사를 받을 때에 원하는 대로 경산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당하기로 작정하십니까?
- 이 직무를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 고자 하신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 하나님의 도량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 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담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여 목사로 임직하면서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염 세하십니까?

2. 교수를에게 기원

- 경산교회 교수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백세봉사를 본 교회의 목사로 받겠습니까?
-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 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열히 복종하기로 승낙하셨습니까?



- 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익을 세우기 위하여 진학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 ④ 여러분은 백세봉씨가 본 교회 목사로 자자 통해 한결같이 그 헌직한 생활비를 인수해 지금하여 주인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원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 주기로 양세하십니까?

기 도 위일국장
골 모 위일국장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백세봉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장을 공포하노라 (이면)

권 면
 ① 위임장을 목사에게 (경산교회) 서종대 목사
 ② 교우들에게 (남천교회) 김대환 목사

답 사 반려불목사

시화 : 달희장

III. 임직식

서 악 달희장

1) 성직자들에게 기념

-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문답을 신구약 성경에 고운한 도리를 충족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겠습니다니까?
- ③ 본 장로회 평치인 금장조례의 예배 모범을 충당한 것으로 술내립니까?
- ④ 경산교회 장로·집사·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별사를 충실히 행하기로 양세합니까?
- ⑤ 경산교회 회랑과 연합과 성결행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양세합니까?

2) 교우들에게 기념

경산교회 교우들이여,
 김정수 해 월세를 본 교회의 사무장으로
 정경현, 정경수, 김재수, 신동운, 김현철, 방양월세를 본 교회 장립집사로
 서정숙, 김복조, 이순자, 이인자, 김명숙, 조월선, 서분조, 오성운, 주옥현,
 김숙자, 설정연, 유태현, 이덕자목을 본 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평치에
 가르친 바를 끓어서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음하기로 양세합니까?



기 도

- ① 장로 인수기도 ----- 당시장
- ② 전시 인수기도 ----- 당시장
- ③ 전시 및 감사 취임기도 ----- (경산중앙교회) 도원목사

공포 ----- 당시장

교회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김정수, 해 음씨가 경산교회 사무장로된 것과
 정경현, 장정수, 김재수, 신동문, 김형호, 방명율씨가 경산교회 장로로 임사임 것과
 서정숙, 김복조, 이순자, 이민자, 김영숙, 조영선, 서분조, 오성은, 주옥현,
 김숙자, 설희연, 권태화, 이덕자씨가 경산교회 권사원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표하노라 (아멘)

관 면

- ① 일직자에게 ----- (동광교회) 백우현목사
- ② 교우들에게 ----- (세경산교회) 서정숙목사
- 사 ----- 일직자 아표 김정수장로

사인 : 위함국장

IV. 감사와 축하

위함 및 일직축하 예배증정

- ① 교회가 위함 목사에게 ----- 일일용 장로
- ② 교회가 일직자에게 ----- 박해봉 장로
- ③ 일직자가 교회에게 ----- 해 음 장로
- ④ 위함목사에게 위함파 증정 ----- 목사관 회장 안치문 목사
- ⑤ 장로장례 기념비 및 빛기증정 ----- 장로회 회장 김성호 장로

 사 ----- 전원교역자 이기봉목사

 가 ----- 김용만목사

 연사및광고 ----- 송석근장로

 찬 응 ----- 1층 ----- 다 갈 이

 한복의 근원 하나님 은 백성 한송드리고 저 천사여 한송하여 한송 성부성자성령 -아멘-

 도 ----- 노회장(밀양동부교회)장태문 목사

 회 ----- 다 갈 이



2000년 11월 23일 경산교회 제14대 위임목사로 박세봉 목사 위임식과 함께 장로 및 집사와 권사 임직감사예배도 함께 드렸다.



2. 교역자 동정

(1) 남 부교역자

- ① 이근수 목사가 1996년 11월 1일에 부목사로 부임하여 사역하던 중 1999년 12월 28일에 사임하고 경산시 사동에서 사도교회를 개척하였다.
- ② 박형렬 전도사가 1999년 5월 23일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후 2000년 1월 1일에 전임전도사로 취임하여 시무 중 2000년 10월 26일 강도사 인허를 받고 시무하다 2001년 9월 5일 경청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시무 중 2001년 12월 30일에 사임하였다.
- ③ 권억중 목사가 2000년 1월 2일에 부목사로 부임하여 2000년 12월 24일 사임하였다. 그후 대구시에서 임마누엘교회를 개척하였다.
- ④ 장수호 전도사가 2001년 1월 21일 부임하여 시무 중 2001년 10월 17일 강도사 인허를 받고 시무하던 중 2001년 12월 19일에 사임하고 경기도 구리시 예인교회로 전임하였다.
- ⑤ 송정목 목사가 2002년 1월 1일 부목사로 대구 봉덕교회에서 부임하여 2003년 12월 28일 사임하였다.
- ⑥ 최상현 전도사가 2000년 1월 2일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시무 중 2002년 1월 13일 전임전도사로 취임 2003년 11월 23일 사임하고 아멘교회로 전임하였다.
- ⑦ 신재규 목사가 2004년 1월 4일 부목사로 부임하여 2005년 12월 31일 사임하여 천안장로교회로 전임하였다.
- ⑧ 강상동 목사가 2004년 2월 1일에 부목사로 부임하여 2005년 12월 31일에 사임하고 왜관교회로 전임하였다.
- ⑨ 오영주 목사가 2006년 1월 1일에 부목사로 부임하여 2006년 11월 26일 사임하여 화원교회로 전임하였다.
- ⑩ 정종재 목사가 2006년 1월 15일에 부목사로 부임하여 시무 중 2008년 4월 30일 사임하여 서울성북교회로 전임하였다.



④ 이근수 목사는 1996년 11월 1일 부목사로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2) 여 부교역자

- ① 황분희 전도사는 이영숙 전도사가 1989년 8월 27일에 사임하여 수원 고매리 교회로 전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1993년 1월 3일에 부임하여 사역하다가 1996년 9월 30일에 사임하였다.
- ② 김청자 전도사는 황분희 전도사 후임으로 1989년 11월 21일에 대구삼성 교회에서 전임하여 와서 사역 중 1992년 12월 15일에 사임하여 대구 범어교회로 전임하였다.
- ③ 장묘임 전도사는 김청자 전도사 후임으로 1996년 11월에 부임하여 사역하였다.

<이기봉목사 목회사 교육전도사 시무현황>

	이 름	시 무 기 간	성별	비 고
1	최상호	1984.1~1987.3.11	남	이만천 목사 목회사 부임
2	이동호	1987.1.4~1988.12.25	남	
3	이덕영	1987.1.4~1988.12.25	남	취임일자, 사임일자가 이동호 교육전도사와 같다. 충신대학원 진학
4	오준환	1987.5.24~1988.8.31	남	시무 중 결혼 유치부담당
5	유영주	1988.10.2~1989.10.8	남	충신대 낙도선교단에 5만원 지원, 서울수유중앙교회로 전임
6	이기락	1989.1.1~1990.12.30	남	
7	손은목	1989.1~1990.7.29	남	의성 고향 가까운 교회로 전임
8	한성만	1989.11.5~1991.12.15	남	
9	권성중	1990.9.23~1992.12.27	남	
10	채종업	1991.4.7~1991.12.15	남	



- ⑪ 김종대 목사가 2007년 1월 7일에 진량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부임하여 2008년 8월 24일 사임하여 공주중앙교회로 전임하였다.
- ⑫ 이재돈 목사는 2008년 4월 27일에 부목사로 부임하여 시무중이다.
- ⑬ 주필돈 강도사는 2008년 11월 23일 부교역자로 부임하여 시무 중 2009년 9월 9일 경청노회 제95회 정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현재 부목사로 시무중이다.
- ⑭ 이정훈 목사는 2006년 1월 1일 경산교회 최초의 교육목사로 부임하여 시무중 2008년 11월 30일 사임하여 대구경운교회로 전임하였다.

(2) 여 부교역자

- ① 장묘임 전도사가 2000년 4월 23일 사임하였다.
- ② 박득숙 여전도사가 장묘임 여전도사 후임으로 2000년 5월 7일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시무중이다. 경산교회에서 최장기로 시무한 부교역자이다.
- ③ 김재은 교육전도사는 2007년 6월 1일 전임 여전도사로 취임하여 2007년 12월 31일 사임하고 다시 유치부 교육전도사로 시무하다가 2008년 11월 30일 사임하였다.

(3) 교육전도사

이 름	시 무 기 간	성별	비 고
1 박형렬	1999.5.23~2000.12.31	남	2001.1.1 전임전도사로 취임
2 김종균	1999.9.19~2001.2.4	남	
3 최상현	2000.1.2~2002.1.13	남	2002.1.13 전임전도사로 취임
4 이종천	2001.2.18~2002.3.31	남	한양대 편입으로 사임
5 김제호	2002.1.20~2003.11.30	남	봉덕교회로 전임
6 조동호	2002.4~2005.12.31	남	

7	성정식	2003.12.7~2008.11.30	남	
8	한희섭	2008.11.23~	남	
9	이병호	2008.9.21~	남	
10	유정혜	1999.1.3~2001.2.4	여	취임시 담임목사 부재 출산으로 사임
11	박현애	2001.2.18~2002.3.31	여	승실대 편입으로 사임
12	강선옥	2002.4~2004.6.30	여	
13	김재운	2004.10.3~2007.5.31 2008.1.1~2008.11.30	여	2007.6.1~2007.12.31전임전도사 출산을 앞두고 사임
14	피승화	2009.1.4~	여	

제2절 박세봉목사 목회

1. 당회

① 장로 동정

김정수 집사와 허원 집사는 2000년 11월 23일 박세봉 목사 위임식날 경산교회 제26대 장로로 임직하였다. 이날로서 장로가 14명이 되었다.



김정수 장로



허 원 장로

한편 김번 장로는 2000년 10월 29일에 송석근 장로는 2002년 3월 31일에 이재홍 장로는 2002년 10월 27일에 각각 정년은퇴 하였다. 박달현 장로는 2005년 3월 14일에 시무 중 별세하였다. 허원 장로는 2005년 7월 9일에 김종태 장로는 2006년 12월 27일에 소병준 장로는 2007년 1월 14일에 양일용 장로는 2007년 11월 30일에 정주성, 배석윤 장로는 2008년 12월 28일에 각각 조기은퇴 하였다.



한편 2003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경산교회 새예배당 현당감사예배와 함께 정경현, 설천복, 노칠균 집사의 경산교회 제27대 장로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경현 장로



설천복 장로



노칠균 장로



박의순 장로

한편 2009년 9월 15일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함께 박의순 집사의 경산교회 제28대 장로임직식이 있었다.

② 협동장로

1958년 3월 24일 이봉학 장로(후에 목사)가 첫 협동장로로 취임 후 때때로 협동장로를 두었다. 김정덕 장로는 경산중앙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후 경산중부교회를 거쳐 고향교회인 경산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중 2001년 6월 24일 협동장로로 임명받았다. 2003년 5월 31일에 정년은퇴 하였다.

김정봉 장로는 대구아멘교회에서 와서 2001년 6월 24일 협동장로로 임명받았으나 2002년 3월 31일 다시 아멘교회로 갔다.

민충남 장로는 대구 신기교회에서 2009년 2월 20일 당회에 이명서가 접수되었다. 그 후 2009년 5월 31일에 경산교회 일곱 번째 협동장로로 임명되었다.



2. 장립집사와 권사

2000년 11월 23일 박세봉 목사위임식과 함께 장로장립식 및 집사장립식과 권사 임직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① 장립집사

협동집사로 시무하던 정경현은 장립집사로 임직되었다. 장정수, 김재수, 신동윤, 김형렬, 방영원은 2000년 11월 23일 장립집사로 임직하였다. 2003년 5월 3일에는 김용배, 이상진, 이원국, 박영태, 김호근, 문기찬, 이만태, 이경우, 최기문, 송진욱 10명이 장립집사로 임직하였다. 김정수, 허원집사는 2000년 11월 23일에 장로로 임직되었고, 정경현, 설천복, 노칠균집사는 2003년 5월 3일에 장로로 임직되었다. 1994년 4월 28일 제6대 장립집사로 임직되어 시무하던 이인수 집사는 2005년 3월 5일에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2009년 9월 15일에는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기념 감사예배와 함께 박지순, 강종수, 전병렬이 장립집사로 임직되었고, 박의순 집사는 장로로 임직되었다.

② 권사

2000년 11월 23일 박세봉목사 위임식때 경산교회에서 가장 많은 13명의 권사취임이 있었다. 서정숙, 김복조, 이순자, 이민자, 김명욱, 조영선, 서분조, 오성은, 주옥희, 김숙자, 설희연, 윤태화, 이덕자의 권사취임이 있었다. 설희연 권사는 2005년 7월 3일에, 주옥희 권사는 2006년 12월 17일에 각각 정년은퇴 하였고, 오성은 권사는 2007년 1월 14일 조기은퇴 하였다. 김복조 권사는 2007년 11월 4일에, 김명욱 권사는 2008년 12월 28일에 정년은퇴 하였고 서분조 권사는 2008년 12월 28일에 조기은퇴 하였다.

또한 2003년 5월 3일 새예배당 현당식과 함께 김차선, 강순덕, 손덕아, 김순자, 정정자, 곽은애, 유남옥, 김애옥, 곽정희, 유경생 이상 10명이 권사



로 임직 되었다.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기념 감사예배시인 2009년 9월 15일에는 박영순, 서현자, 이희순, 이순임, 김태순이 권사로 임직 받았다.

3. 교회 표어

박세봉 목사 목회시 교회표어는 다음과 같다.

년 도	표 어
1999년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시139:7~10)
2000년~2002년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시139:7~10) <실천목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2003년~2004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3:2) <실천목표>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2005년~2009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합3:2) <실천목표>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구제와 봉사에 집중하는 교회



4. 찬양대

(1) 할렐루야 찬양대

① 대장

찬양대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 최근 10년간 대장으로 설천복 집사(후에 장로), 노칠균 집사(후에 장로), 김형렬 집사, 신동윤 집사, 방영원 집사이다.

② 지휘자

김용배 집사, 김형식 집사로서 김용배 집사가 장기간 수고했다.

③ 반주자

반주자는 피아노와 전자오르간 반주자로 구분된다. 박명주 선생, 소영이 선생, 이정숙 선생, 김지현 선생, 이은정 집사, 유혜진 선생, 임은영 사모 할렐루야 찬양대는 주일 오전 2부예배시 찬양을 담당하고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있다.

(2) 호산나 찬양대

① 대장

장정수 집사, 신동윤 집사, 김형렬 집사, 양종후 집사

② 지휘자

권용활 집사, 김원규 집사, 김권호 집사, 박지순 집사

③ 반주자

노지현 선생, 정혜진 선생, 이정숙 선생, 이은정 집사, 이해현 선생, 주민선 선생, 최은혜 선생, 오미숙 집사, 이은숙 선생, 강영분 권사
호산나 찬양대는 오후예배시에 찬양을 하고 찬양대원의 연령이 높다.

(3) 실로암 찬양대

① 대장

강임수 집사, 신동윤 집사, 김형렬 집사, 박영태 집사, 방영원 집사

② 지휘자



박영태 집사, 신의선 선생, 김인규 선생, 송재익 선생, 이은정 집사

(3) 반주자

이혜은 선생, 이옥주 선생, 양지은 선생, 소영이 선생, 이혜련 선생,

오미숙 집사

실로암 찬양대는 주일 오전 1부예배시 찬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로 구성되어있다.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찬양예배를 드렸다. 최근 부활절에는 부활절 축하 연합예배로 경청노회 연합찬양대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4) 참빛 찬양단

1992년 12월 15일 조직된 참빛 찬양단은 여전히 청년대학부 예배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심야기도회에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한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단원은 청년대학부로 구성되어있고 악기로는 드럼 신디사이저 기타 등이 있다.

경산교회설립 100주년인 2009년 현재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단 장 이원국 장립집사

리 더 이성훈 선생

단 원 최선영, 이신윤, 배은진, 성은진, 이혜린, 차이슬, 이대엽,
최세영, 박예지, 김다영, 박현제, 박남현, 강세진

(5) 임마누엘 찬양단

임마누엘 찬양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 2005년 12월 18일(주)에 개최된 제779회 정기 당회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단 장 박의순 집사(후에 장로)

리 더 윤용승 집사



시스템 박영주 선생

건 반 박명주 선생

이로서 임마누엘 찬양단이 발족되었다. 주로 청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금요심야기도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경산교회설립 100주년인 2009년 현재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지 도 이병호 교육전도사

단 장 전광석 집사

리 더 엄지은 집사

건 반 김다영 선생

드 럼 박상진 선생

베이스 박현제 선생

단 원 김광식, 김성태, 유지산, 조현민, 강미숙, 김은정, 손정아, 황미경,
장문향, 이형애

(6) 더 웨이(The way) 여성중창단

더 웨이 여성중창단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을 통해 하나 되며 연합하여 교회와 지역을 섬기며 헌신한다는 목적 하에 2007년 1월 창단되었다.

단 장 오상희 집사

리 더 이은정 집사

단 원 김기숙, 김은정, 김정숙, 오정희, 이옥자, 전화숙, 정연주, 조희숙,
황미영



5. 주일학교

주일날 예배시간 전후에 성경공부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다. 경산교회에서도 초창기부터 성경공부에 힘써왔다.

주일학교는 유치부(취학 전 어린이), 유년부(초등학교 1, 2, 3학년), 초등부(초등학교 4, 5, 6학년), 중등부, 고등부, 청대부, 장년부로 조직되어 있다.

영아부(미취학 어린이보다 더 어린 어린이)를 두어 부모들이 주일낮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린이를 맡아 교육과 보호를 하였다. 2003년 1월 1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해오다 2008년부터 폐지하였다. 김정숙 집사가 영아부장으로 수고하였다.

장년부는 그동안 장년부장이 혼자서 장년공과를 가르치기도 하고 분반하여 여러 반사가 가르치기도 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분반하지 않고 부장이 전체적으로 공과를 가르쳤다. 1988년 1월부터 1996년 12월 까지 9년간과 1998년 1월부터 2002년 12월 까지 5년, 도합 14년간을 양일용 장로가 맡아 수고하였다. 한편 소병준 장로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년간 맡아 수고하고 장년부 마지막 부장이 되었다.

그 외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대부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는 해당 공과를 통하여 분반해서 하였다.

경산교회설립 100주년인 2009년 현재의 주일학교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

- (1) 위원장 : 박세봉 목사
- (2) 총 무 : 이재돈 부목사
- (3) 서 기 : 한희섭 교육전도사
- (4) 회 계 : 전화숙 집사
- (5) 위 원

교역자 : 주필돈 부목사, 피승화 교육전도사, 이병호 교육전도사

고문 : 정경현, 설천복, 노칠균, 박해동, 이문수, 신동욱 장로
부장 : 전화숙, 오상희, 황동희 하륜자, 신동윤, 이원국 집사

<유치부>

김정옥 함명숙 조향미 권미란 최선영 서은이 최은진 김현숙 김기숙
정연주 김은정 김정선 박순진 전명숙 안임선 이영순 박은희 정경례
신원경 김은연 신대은 박은주 박혜진

<유년부>

김다영 박경미 빅상규 김승주 김광식 손정아 김경미 강미숙 박미영
이지혜 양종후 최기창 조현민 배은정 박현제 남석순 정경희 엄지은
구정완 전미자 권준우

<초등부>

- (1) 고 문 : 노칠균 장로 (2) 교역자 : 한희섭 교육전도사
(3) 부 장 : 황동희 집사
(4) 교 사
전효옥 황미영 송제익 김명옥 이수진 최세영 김지영 박수영 최영미
이은숙 성은진 박해금 신창근 김성은 이은현 황미경 이성훈 이신윤
이경민 강세진 조순미

11	임성호	1992.1.12~1993.12.26	남	총신대학원 진학
12	손동현	1992.6.14~1993.12.26	남	총신대학원 진학
13	허정문	1993.2.7~1997.10.26	남	
14	김신웅	1994.1.2~1996.9.30	남	
15	신종민	1994.1.2.~1995.6.25	남	
16	고성현	1995.6.25~1996.12.8	남	
17	조경래	1996.10.6~1997.12.28	남	
18	유도훈	1997.3.23~1999.3.28	남	사임시는 담임목사 부재중
19	김종인	1998.1.4~1998.12	남	중등부 담당
20	임종득	1998.1.4~1999.12.26	남	초등부 담당, 사임시 담임목사 박세봉 목사
21	남기연	1999.2.7~1999.8.29	남	부임시는 담임목사 부재, 사임시 담임목사 박세봉 목사
22	조신숙	1993.1.3~1993.6.27	여	경산교회 첫 여자 교육전도사, 유치부 담당
23	황분희	1993.1.3~1996.9.30	여	전임여전도사와 유치부교육전도사 를 겸임
24	박현진	1997.1.5~1998.12.13	여	
25	유정혜	1999.1.3~2001.2.4	여	출산으로 사임, 취임시 담임목사 부재

제2절 이기봉목사 목회

1. 당회록 6호시대

1960년 3월 27일 제302회 정기 당회 시 즉 권신찬목사 목회 마지막해인
 1960년부터 1989년 3월 19일 제618회 제1차 임시당회(당회장 이기봉 목
 사)까지 당회록 5호 시대는 마감된다.

제5호 당회록에는 경산제일교회의 분립, 경청노회 가입, 교회의자 설치, 전



<중등부>

- (1) 고 문 : 박해동 장로 (2) 교역자 : 주필돈 강도사
- (3) 부 장 : 하륜자 집사
- (4) 교 사

권영수 김성태 이상복 김상호 김영민 윤승민 이근익 김보현 장문향
윤지혜 박상현 김은혜 이해림 조미령 정진섭

<고등부>

- (1) 고 문 : 이문수 장로 (2) 교역자 : 이재돈 부목사
 - (3) 부 장 : 신동윤 집사
 - (4) 교 사
- 이경은 강보경 김하영 차이슬 박두호 박상진 채지희 박성애 송진우
엄태윤 김정의 강애리

<청년대학부>

- (1) 고 문 : 신동욱 장로 (2) 교역자 : 주필돈 강도사
- (3) 부 장 : 이원국 집사

6. 사기편찬

경산교회 사기편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말에 신년도 사기편찬 위원장 및 위원을 당회에서 선정하였던바 위원장에 김 번 장로, 위원에 신동욱 장로를 선출하였다. 김 번 장로와 신동욱 장로는 사기편찬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경산교회 제13대 위임목사인 오태환 목사를 부산으로 찾아가서 화강석예배당의 건축당시의 이모저모와 기타 목회시의 일들의 자료수집 및 그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여 기록, 보존하였다. 또한 1987년 12월 22일에는 사월교회에 최장기 시무한 김원재 장로를 방문하여 경산교회가 사월교회로부터



분립하여 나올 때의 상황과 초기의 경산교회 모습에 대해서 귀중한 증언을 듣고 기록과 녹음을 하여 후일 100년사 편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988년 1월 6일에는 경산교회출신으로 영남대학교 교학부총장 이창우 박사(대봉교회 장로)를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의 경산교회모습에 대하여 대담하였다.

김 번 장로가 2000년 10월 29일 정년 은퇴함에 따라 2001년에는 신동욱 장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위원은 정주성 장로가 선임되었다. 위원장 신동욱 장로는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통괄하여 재정과 섭외, 기획 등을 총괄하며, 위원 정주성 장로는 사기편찬 기초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함으로 경산교회 100년사 편찬에 대비하였다.

정주성 장로가 2008년 12월 28일 조기은퇴 함에 따라 후임에 설천복 장로를 선출하였다. 여러 사항을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기록을 정리하여 사기편찬의 자료로 보관하였다.

한편 경산교회 출신인 정주경 목사가 1999년 1월 31일부로 은퇴하여 같은 해 2월 9일에 고향인 경산에 이사를 오게 되었다. 정주경 목사는 교회 내 사기편찬실을 마련하여 교회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범위가 1909년부터 2002년(일부는 2003년)까지 기초조사를 하여 2003년 4월 30일에 『경산교회 100년사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철』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사진으로 보는 경산교회 100년사』총 25권을 2008년 작성 완성하였다.

- ① 연 혁
- ② 담임 목사 · 성례식
- ③ 부교역자
- ④ 장 로
- ⑤ 장립집사
- ⑥ 권 사
- ⑦ 제직활동



- ⑧ 찬양대(할렐루야, 호산나)
- ⑨ 찬양대(실로암, 학생)
- ⑩ 주일학교(영아부, 유치부)
- ⑪ 주일학교(유년부, 초등부, 확장 주일학교)
- ⑫ 주일학교(중등부, 고등부)
- ⑬ 주일학교(청대1부, 청대2부, 장년부)
- ⑭ 계절학교(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 ⑮ 수련회(중등부, 고등부, 청대부, 장년부)
- ⑯ 학생회
- ⑰ 청년회
- ⑱ 전도
- ⑲ 선교
- ⑳ 부흥회
- ㉑ 연합집회
- ㉒ 대사회 교육 및 봉사
- ㉓ 야외 친목회
- ㉔ 당시의 이모저모 기타
- ㉕ 100주년 기념행사

그 외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자료집」, 「전도(새 생명 축제, 기타)자료집」, 「예, 결산 서첩」「자료집」을 작성하였다. 또한 사기편찬 위원회(위원장 신동욱 장로)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당회록 및 제직회록 복사판 3부를 분산하여 비치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수영 선생이 컴퓨터 무료 봉사를 하여 이룩하였다. 한편 2008년 5월 25일에 개최한 제808회 당회록에 의하면 경산교회 100년사 편찬을 위하여 주필로 정주경 목사를 선임, 100년사 집필을 의뢰하여 현재 집필 중에 있다.



사기편찬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장로, 위원 정주성 장로와
〈경산교회100년사〉 집필자 정주경 목사

7. 전도회와 안나회

전도는 교회사역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도를 위하여 교회 속회로 평신도 단체인 전도회가 남녀별로 연령에 따라 조직되었다. 각종 전도운동 및 기도 모임 친목회 연합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산교회 설립 100 주년인 2009년의 연령별 조직은 다음과 같다.

제1남전도회 (만 61세 이상 남자성도)

제2남전도회 (만 51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성도)

제3남전도회 (만 41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성도)

제1여전도회 (만 66세 이상 70세 이하 여자성도)

제2여전도회 (만 61세 이상 65세 이하 여자성도)

제3여전도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성도)

제4여전도회 (만 51세 이상 55세 이하 여자성도)

제5여전도회 (만 46세 이상 50세 이하 여자성도)



제6여전도회 (만 41세 이상 45세 이하 여자성도)

한편 안나회는 제1안나회는 만 76세 이상의 여자 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안나회는 만 71세~만 75세 여자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 친목단체이다.

8. 청년들의 활동

오랜 역사를 지닌 청년회가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으나 해방 후 재건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면서 그 구성은 여러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만 31세부터 만 40세까지의 결혼한 남녀 성도들로 구성된다. 월 1회씩 모여 월례회를 개최하여왔으나 몇 해 전부터 매 주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모이는 것이 정착되었다.

또한 매년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여 영성훈련과 동시에 친교, 단체훈련 등을 하였다. 회원 25명, 어린이 25명 약 50명 정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5월이 되면 어버이날을 전후로 청년회 주최로 교회내의 65세 이상의 남녀 성도들을 초대하여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때로는 바다나 휴양지 등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욕, 관광, 선물 등으로 위로하였다. 또한 격년제로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을 이용하여 전교인이 참여하는 「3대가 함께하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전교인의 화합을 도왔다.

2009년 청년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고 문	김정수 장로
지도교역자	박종규 목사
회 장	김성태 집사
부 회 장	이형애 집사
총 무	조현민 집사
서 기	김광식 집사
회 계	장문향 집사



9. 선교

경산교회에서 선교사역의 시작은 1971년 5월 24일(월) 아시아 선교회 회원 교회로 가입함으로 시작된 것과 1982년 6월 20일에 경산교회 선교회가 조직되어 독자적인 선교사역이 시작된 것은 이미 전술하였거니와 그동안 선교사역이 꾸준하게 계속되며 점차 심화되어 갔다.

인도 평신도 선교사 최도웅 장로(경청노회 파송 평신도 선교사)가 1999년 4월 18일 선교회 실행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인도 현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교인 수 40~50명

교회 건축 15평 (시멘트, 벽돌, 슬레트 150만원)

교회 지원금 30만원 사용처

선교 센터 10만원

존목사 10만원

집세 5만원

잔액 5만원으로 벽돌 구입

또한 이 회의에서 오토바이 1대(100만원) 구입비와 인도 선교회 교회 건축비 100만원 지원키로 결의하였다. 아울러 박세봉 목사와 송석근 장로가 인도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지 답사키로 하였다.²⁵⁸ 선물로 수건, 러닝셔츠, 볼펜 등 50인분 50만원어치를 구입하여 1999년 7월 22일에서 31일(토)까지의 일정이었다. 허원 집사도 동행하였으며, 전성문 원로장로는 자신이 후원하여 세운 인도 성문교회 방문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였다.

후원 선교사로는 패스칼 선교사를 지정키로 하였다.²⁵⁹ 인도 혜브론교회 신축부지 97평을 구입하기로 결의하고 평당 25만원, 2,425만원과 수속비 200만원 계 2,625만원으로 하고 대지구입 파송원으로 소병준 장로와 신순길 권

258 주보 제90권 제29호(1999. 7. 18).

259 경산교회 선교 실행위원회, “제77회 실행위원회록” (1999. 12. 26).



사 2명을 파송키로 하였다. 따라서 소병준 장로와 신순길 권사는 인도 헤브론교회 대지 구입 현황과 등기절차 확인을 위하여 2000년 2월 7일(월)에 출발하여 2월 16일(수)에 귀국하였다. 평신도 선교사 최도웅 장로의 환영을 받으면서 부지를 답사하니 전체 면적이 250평, 구입한 헤브론 교회 부지는 97평이었다. 관광과 예배로 이어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²⁶⁰ 2000년 2월 20일(주)에 개최된 제80회 실행위원회에 보고되었다.²⁶¹

그후 인도 헤브론 경산교회당 건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공사가 중단상태에 이르러 2002년 3월 17일에 개최한 제87회 실행위원회에서 인도 헤브론 교회(담임목사 존슨, 선교사 최도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단 존슨 목사 생활비는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은호 선교사에게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월 20만원을 선교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청노회가 주관하는 동티모르 방문에 박해동, 신동욱 장로가 동참하여 현황파악을 하기로 하여 2003년 11월 28일(금)에 출발하여 12월초에 돌아왔다.



260 신순길,『신순길 권사의 수기 및 인도선교지 방문 기행문』72~97.

261 경산교회 선교 실행위원회, “제80회 실행위원회록”(2000. 2. 20).



인도선교지 현지답사(1999. 7. 22~31)

2005년 4월 3일에 개최된 제100회 선교회 실행위원회에서 단기선교사가 빈번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선교 보조 기준안’ 6개 항목을 작성하여 선교 회장 정주성 장로가 낭독 설명 후 채택하였다.

〈단기선교 보조 기준안〉

1. 세례교인으로 신앙생활에 힘쓰는 자
2.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선교회원으로서 선교교육을 받은 자
3. 단기선교 보조를 받지 않는 자를 우선하되 보조를 받은 자는 2년간 유예
4. 1인당 보조는 40만원으로 하고 인원은 연 10명으로 제한
5. 기금조성은 선교회에 일원화
6.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 후 결정

2005년 7월 10일에 개최된 제101회 선교회 실행위원회에서는 경산교회 주 선교사로 이은택 선교사를, 주선교지는 동티모르로 결정하였다. 한편 최병권, 조은호 선교사는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단기선교사로 조미령, 손원식, 평신도 선교사로 최상락 집사의 동티



모르 방문, 청대부의 박주양, 김인규, 김보현 등을 단기선교사로 파송하고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본선교회는 GO선교회를 계속지원키로 하였다. 단기선교로 강세진(몽골) 박상규(아프가니스탄) 양지은(이란) 황동희(몽골)에 지원금을 지불하였다. 북한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였다. 최상락 평신도선교사(캄보디아)를 매월 지원하여 GO선교회의 지원은 2007년으로 중단키로 하였다.

경산교회에서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7년 3월 11일에 열린 선교회 제112회 실행위원회에서 북한선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총무 산하 실무팀을 구성하였다. 그 후 우선 탈북어린이 고아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두리하나 선교회’ 경산의 집 1개 팀(5~6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요 금액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²⁶² 그리고 최의웅 목사(필리핀 선교사, 경청노회 협력선교사)를 경산교회 협력선교사로 결정하여 지원키로 하였다.²⁶³ 그러나 최상락 평신도 선교사는 2008년 9월 21일부터 본교단을 이탈하면서 경산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기로 하였다.²⁶⁴



박종규 목사

2008년 11월 30일에 개최한 제119회 선교회 실행위원회에서 주 선교사인 이은택 동티모르 선교사에 대해 사정상 선교비 지불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²⁶⁵ 동시에 동남아시아에 파송할 선교사를 모집하던 중 파송 선교사로 박종규 목사를 결정하였다.²⁶⁶ 그 후 이은택 선교사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서를 제출함으로 2009년 6월 28일에 개최한 제821회 정기당회에서 수리하기로 가결하였다. 동시에 같은 날 개최된 선교회 선교실행위원회에서도

262 경산교회 선교 실행위원회, “제114회 선교실행위원회록”(2007. 7. 22).

263 경산교회 선교 실행위원회, “제121회 선교실행위원회록”(2009. 4. 5.).

264 경산교회 당회, “제811회 제1차 임시당회록”(2008. 9. 21.).

265 경산교회 당회, “제821회 정기당회록”(2009. 6. 28.).

266 경산교회 당회, “제818회 정기당회록”(2009. 3. 29.).

이은택 선교사 사임을 통보해옴으로 사임을 받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온 이은택 선교사와 경산교회가 아쉽게도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선교실행위원회에서 중국 연길 경산원, 북한 탈북자 선교도 중단하기로 가결하고 지원 금액은 목적현금으로 현 잔액 4,961,653원을 일시불로 지원하기로 하고 두리하나 선교회(천기원 목사)에 통보함으로 종결되었다.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에 파송될 박종규 선교사와 협력선교사로 조은호(인도) 최병권(중국) 최의웅(필리핀)선교사가 경산교회 후원선교사이다.

박종규 목사는 2009년 5월 16일(금)에 교회에서 마련한 경산시 삼북동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왔다.²⁶⁷ 파송될 때까지 교역에 동참하여 교인들과 친교하며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10. 목요무료급식

그동안 계속하여 실시하여오던 사랑의 목요급식이 새예배당 건축 관계로 2002년부터 중단되어오다 2004년 4월 8일 목요일에 재개되었다. 경산지역의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65세 이상의 경산시민을 상대로 한 목요무료급식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였다.

목요무료급식에서는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정주 경 은퇴목사가 복음을 전했다. 박세봉 목사와 부교역자도 수시로 함께 복음을 전하였다. 2004년 4월부터 박세봉 담임목사와 부교역자가 담당하다가 최근에는 꽈은애 권사가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홀로 쓸쓸히 지내는 독거노인을 돋는 일을 2003년 12월부터 시작하였다.²⁶⁸ 교회 표어의 한부분인 구제와 봉사에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로 전환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009년도 구제와 봉사 위원회 위원장에 노칠균 장로, 총무에 꽈은애 권사가 담당하고 있다.

267 주보 제100권 제19호(2009. 5. 10.).

268 경산교회 당회, “제753회 정기당회록” (2003. 11. 30.).



화가설 등 시설공사의 확장, 교육위원회, 도서부 발족 등과 경산남부교회 분립 등 교회신장의 현황을 볼 수 있다. 이제부터 경산교회 당회록 6호시대에 접어든다.

2. 당회동정

① 배경학, 방태호, 안문식, 박종길 장로 정년은퇴

배경학 장로는 1992년 10월 8일에 정년은퇴 하였다. 배경학 장로는 당회서기 등 여리모로 수고하였다. 또한 방태호 장로는 1994년 12월 31일에 정년 은퇴하였다. 방태호 장로는 당회제직회 서기를 비롯하여 주일학교 중등부장을 약 12년간 최장기 시무하였다. 또한 청년회, 남전도회 등 여리모로 봉사하였다. 안문식 장로는 1995년 12월 31일에 정년 은퇴하였는데 교회시설의 정비 확장에 이모저모 헌신봉사 하였고 선교회장을 맡아 수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종길 장로는 1996년 12월 29일 정년은퇴 하였다. 박종길 장로는 학생회 초대회장과 경산유치원 원장 등으로 수고하였다.

② 장로장립 및 은퇴

송석근, 양일용, 김번은 1987년 11월 26일 경산교회 제22대 장로로 장립하였다. 한편 이정우 장로는 청천교회에서 1985년 3월 10일에 이명와서 1987년 11월 26일에 시무장로로 취임하였다. 1992년 10월 8일 정년 은퇴하였다. 박해동은 1992년 10월 8일에 경산교회 제23대 장로로 장립하였고 이문수,



송석근 장로



양일용 장로



김 번 장로



이정우 장로



목요무료급식(2005. 10)

11. 홈스쿨(Home School)

홈스쿨은 지구촌의 깊주린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71년 창립된 국제선교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경산교회가 파트너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보호 희망과 용기를 주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이다. 경산 행복한 홈스쿨은 2005년 9월 13일부터 실질적으로 활동하며 어린이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정식개소는 2005년 11월 18일에 개소되었다. 방과 후 교회에서 학습지도를 하고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돌보고 있다.

2009년 7월 현재 인원수는 초등생 남 21명 여 15명, 중학생 남 1명 여 1명 총계 38명이다. 아울러 역대 시설장과 간사는 다음과 같다.

<시설장>

박지순 집사 (2005. 9. 13 ~ 2007. 3. 19)



안임선 집사 (2007. 3. 20 ~ 2007. 8. 20)

박경미 집사 (2007. 8. 21 ~ 현재)

<간 사>

안임선 집사 (2005. 9. 13 ~ 2006. 8. 31)

황미경 집사 (2006. 9. 1 ~ 2007. 12. 20)

김상호 선생 (2007. 12. 21 ~ 현재)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개소식(2005. 11. 18)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개소식(2005. 11. 18)

12. 성경 연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연구가 신앙생활의 기본임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박세봉 목사는 체계적인 성경교육에 힘썼는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였다. ‘일대일 제자양육’ ‘크로스웨이’ ‘TBC 성경공부’ ‘청년회 목장리더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경연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였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① 일대일 제자양육

처음으로 시작한 성경연구이다. 남반을 주일오후에 여반을 화요일 낮에 실시하였는데 2000년에 시작되어 1년 5개월 정도 진행되었다. 교재를 배부하여 교재를 통해 연구하였다.

② 크로스웨이

남녀 40여명이 모여 교재를 통하여 1년간 공부하였다.



③ TBC 성경연구

2005년 9월에서 2007년 9월까지 진행되었다. 직장인을 위한 월요일 저녁 시간과 화요일 낮시간, 두 번의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교재는 TBC성경연구원에서 발행하는 TBC성경연구 구약과 TBC성경연구 신약, 두 권의 교재를 연구하였다. 약 50명 정도 모였다.

④ 청년회 목장리더교육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청년회 목장리더교육을 시작하였다. 박세봉 목사로부터 남녀 12명이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교육이 있었다. 교재는 박세봉 목사의 주일설교원고를 요약한 것을 토의하며 적용하였다. 2009년 6월 말부터 교육받은 청년들이 목장의 리더가 되어 5개 목장으로 나누어(남 2목장, 여 3목장) 수요일 오전 2목장, 오후 2목장, 토요일 오후 6시 30분 1목장(주로 직장인)이 목장모임을 가졌다. 현재 리더는 조현민 집사, 황동희 집사, 안임선 집사, 김현숙 집사, 황미경 집사이다.

13. 기타

① 송구영신예배

해마다 송구영신예배를 드렸다. 대개 0시 이전에는 하나님께 한 해 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0시 이후 곧 새해벽두부터는 새해감사예배를 드렸다. 다가오는 희망의 새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였다. 송구영신예배때에는 주일 낮 예배 보다 더 많이 모이는 때가 많았다. 그리고 학생 청년 어린이까지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예배와 감사의 현금을 드렸다. 박세봉 담임목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말씀을 전하며 축복했다. 예배를 마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서로 새해인사를 나누며 차를 들면서 친교 하였다. 경산교회설립 100주년이 되는 2009년 송구영신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송구영신예배>

0 시

인도 박세봉 목사

북 도	송 영	다같이
기 원		인도자
찬 송	1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550장	다같이
기 도		전성문 장로
성경봉독	마 14:22~33(신 24p)	박세봉 목사
찬 양		연합 찬양대
말씀중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박세봉 목사
찬 송	135장	다같이
광 고		인도자
찬 송	5장	다같이
축 도		박세봉 목사
폐 회		성도의 교제

② 새가족 관리와 바나바 사역

<새가족 사역>

새가족은 처음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과 타교회에서 이동해오는 이동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 새가족 사역을 거치면 막연히 예배에만 참석하던 사람들이 적어도 일 년 이상 빨리 교회에 적응을 할 수 있다.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의 경우 무엇보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배워야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



면 잘할 수 있는가를 알아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가족 모임은 이런 점들을 돋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에 대해 다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 출석하는 교회에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경산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을 2001년 중반부터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중 공식적으로는 2002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이충 본당 옆에 새가족실을 마련하여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차와 다과를 대접하며 예배시간에는 새가족석을 마련하여 환영하였다. 초대위원장에 정경현 집사(후에 장로)가 2008년까지 담당하여 제반규약 작성 등 기초 확립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새가족은 5주의 성경기초공부를 한다. 2009년에 와서 새가족 사역과 바나바 사역을 일원화 하였다.



2006년도 새가족관리위원회



역대 새가족 위원회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02년~2003년	위원장 정경현 집사, 총무 정홍주 집사
2004년	위원장 정경현 장로, 총무 정홍주 집사
2005년~2006년	위원장 정경현 장로, 총무 전병렬 집사
2007년	위원장 정경현 장로, 총무 강종수 집사

2008년 새가족 위원회가 새가족관리 위원회와 바나바 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새가족관리 위원회	위원장 박해동 장로, 총무 전병렬 집사
바나바 위원회	위원장 정경현 장로, 총무 강종수 집사

2009년에는 새가족관리 위원회와 바나바 위원회가 새가족관리 위원회로 통합하였다.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교역자	이재돈 부목사
위원장	박해동 장로
새가족 총무	이국희 집사
바나바 총무	강종수 집사

또한 집사이상 지원자에게 바나바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나바 사역>

바나바사역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바나바를 모델로 새신자 정착을 위해 평신도를 훈련하는 사역이다. 바나바는 새신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랑과 친절로 만났고 사울을 반목하는 예루살렘교회에서 사울을 한 가족으로 정착시킨 교회의 숨어있는 보배였다. 바나바 사역은 이 바나바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 숨어있는



평신도 보배를 발굴하여 주님이 보내는 새가족을 교회에 정착시켜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사역이다. 경산교회에서 바나바사역이 새가족 사역에서 분리되어 시행되기는 2007년 1월부터이다 사무실은 새가족실과 함께 사용하였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될 때까지 친절하게 모든 노력을 다한다. 7주간의 교육을 마치면 주일예배시간에 꽃다발과 함께 성경을 선물로 받는다. 2007년 시작한해부터 2008년 까지 위원장으로 정경현 장로가 담당하여 수고하였다. 2009년부터 새가족사역과 바나바 사역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9년 바나바 사역 담당자는 새가족부 담당자와 같다.

〈새가족 현황〉

년도	등록자	출석자 (7회이상 출석기준)
2007	167 (새생명축제 등록포함)	86
2008	127	92

③ 도고기도 사역

경산교회에서 ‘도고기도’ 사역이 2005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도고기도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대신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죄사함과 자녀됨의 권리를 가지고 간구하는 행위이다. 원하는 시간을 희망하여 그 시간에 도고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도고기도사역은 특별전도위원회의 한 팀으로 소속되어있었으나 2007년부터 분리 독립하였다.

기도수칙과 기도순서배정은 다음과 같다.

〈기도 수칙〉

1. 한 주일에 한 시간 도고기도실에서 기도시간을 성실하게 지킨다.



2. 모든 기도제목의 내용들을 하나님께만 아뢰며 모든 기도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3. 도착시간과 도고기도실을 떠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4. 기도시간표를 보고 60분을 잘 분배하여 골고루 기도한다.
5. 기도가 끝난 후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정돈한다.

〈기도순서 배정〉

1. 마음을 여는 기도 / 찬송과 말씀 기도
2. 이웃(성도)을 위한 기도
 - 1) 긴급기도 : 1주일
 - 2) 일반기도 : 1개월
3. 교회사역을 위한 기도
 - 1) 특별전도위원회(성암산/병원/아파트/경산역/이슬비)
 - 2) 새가족관리위원회
 - 3) 도고기도사역위원회
 - 4) 구제와 봉사위원회
 - 5) 전도폭발훈련
 - 6) TBC 성경공부
 - 7) 홈스쿨
 - 8) 교육위원회
 - 9) 선교실행위원회
 - 10) 당회
 - 11) 제직회
 - 12) 찬양위원회
 - 13) 바나바사역훈련
4. 예배와 교역자,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
5. 지역과 민족을 위한기도
6. 선교와 세계를 위한기도
 - 1) 선교사 : 이은택(동티모르)
 - 2) 협력선교사 : 조은호(인도), 최병권(중국)
 - 3) 협력선교회 : 지오(GO)선교회
7. 마무리 감사기도



한편 2009년도 도고기도 사역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담당교역자 주필돈 부목사

위원장 박의순 장로

총무 방영원 집사

도고기도자는 다음과 같이 예배시간에 도고기도 위원장 박의순 장로의 선창에 따라 서약서를 제창하며 서약을 하였다. 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고기도 헌신서약서>

본인은 경산교회 도고기도 헌신자로 교회와 이웃, 지역과 선교사 등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이 사역에 헌신합니다.

1. 도고기도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한 기간 동안 충실히 시행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2.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만 아뢰고 비밀은 철저히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 서약합니다.
3. 헌신기간동안 도고기도사역 뿐 아니라 여러 기도모임에 참석하여 경산교회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④ 경북노회(통합측)로 부터 부동산 환수하다.

본 교회 재산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리될 때 통합측 경북노회 유지재단에 편입된 부지, 경산시 삼북동 76, 77, 79, 80, 89번지 등 5필지 456평($1507m^2$)과 지상건축물을 경북노회(통합측)로부터 환수 받아 소유권을 이전토록 경북노회 통합측 유지재단에 청원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예상대로 되지 못하고 지나던 중 대구달성제일교회 조성훈 장로가 설천복 장로에게 ‘교회재산 반환절차’에 대한 정보를 주므로 2004년 5월 30일에 열린 정기당회에 이를 보고하니 당회는 모든 절차



임직 및 은퇴예배기념 (1992. 10. 8)



박해동 장로



이문수 장로



신동욱 장로



박달현 장로



소병준 장로



정주성 장로



이재홍 장로

신동욱, 박달현, 소병준, 정주성, 이재홍은 1994년 4월 28일에 경산교회 제24 대 장로로 장립하였다. 한번에 6명이 장로로 장립받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쉽게도 식순 등 남아있는 자료는 없다.



를 정주성 장로와 설천복 장로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침내 경북노회 통합측 유지재단에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 양도받아 모든 재산을 재산을 완전 환수 하여 2005년 6월 3일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완료하였다. 양도받아 회수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교외부지 (경산시 삼북동)						
번호	지번	면적		지목	소유	비고
		평	m ²			
1	76	20	66	종교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2005. 6. 3 경북노회 유지재단 중여
2	77	13	43	종교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2005. 6. 3 경북노회 유지재단 중여
3	79	165	545	종교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2005. 6. 3 경북노회 유지재단 중여
4	80	134	443	종교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2005. 6. 3 경북노회 유지재단 중여
5	89	124	410	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2005. 6. 3 경북노회 유지재단 중여
합계	5 필지	456	1,507			

제3절 특별전도사역과 태신자 전도

전도는 교회의 생명이라 하겠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기봉 목사 목회시대인 1997년 4월에 여집사 7명이 자비로 성암산 전도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특별전도의 시초라 하겠다. 박세봉 목사는 부임 2년 후인 2001년부터 이 사역을 최우선시하여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 발자취는 다음과 같다.



1. 이슬비 전도대(사랑의 편지 나누기)

이슬비처럼 소리 없이 촉촉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적시어 교회로 인도하려고 이슬비 전도대로 이름 지었다. 끊임없는 편지를 통해 전도하는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사랑의 편지나누기’라 하였다. 이때가 2000년 4월이었다.²⁶⁹ 먼저 이슬비 전도대 조직에 앞서 2000년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2일 동안 포항중앙교회에서 개최하는 이슬비 전도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²⁷⁰ 그 후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되고 기타희망교인을 상대로 운암교회 조승희 목사를 강사로 경산교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이슬비 전도훈련을 실시하였다. 2000년 5월 27일 이었다. 첫 이슬비 전도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²⁷¹

대 장 김종태 장로
총 무 곽정희 집사
회 계 김명옥 집사

2. 하늘나라 전도대

2001년 1월부터 이슬비 전도대를 하늘나라 전도대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내용을 다원화 하였다.

- ① 성암산 전도팀
- ② 이슬비 전도팀
- ③ 새가족팀
- ④ 재정후원팀

임원은 다음과 같다.²⁷²

대 장 김종태 장로

269 경산교회 당회, “제708회 제2차 임시당회록”(2000. 4. 15).

270 경산교회 당회, “제708회 정기당회록”(2000. 3. 26).

271 경산교회 당회, “제709회 정기당회록”(2000. 4. 30).

272 『경산교회 요람』 2001, 44.



총 무 회 계	곽정희 집사
전도팀장	김명옥 집사
기도후원팀장	서현자 집사
재정후원팀장	신동욱 장로
	양일용 장로

3. 특별전도위원회

2002년 1월에는 다시 특별전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개편과 함께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하였으며 전 방위로 전도를 실시하였다.

- ① 성암산 전도팀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 ② 이슬비 전도팀 : 자율적으로
- ③ 파라솔 전도팀 : 각처에 파라솔을 펴놓고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
- ④ 새가족팀 : 2007년부터 독립
- ⑤ 기도후원팀 : 2007년부터 독립
- ⑥ 재정후원팀 : 매월 일정액 재정후원
- ⑦ 전도폭발 : 전도폭발로 분리

2002년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²⁷³

위 원 장	박세봉 목사
부위원장	송정목 부목사
밀레몰팀장	박해동 장로
이슬비, 성암산 팀장	김정봉 장로
전도폭발 팀장	김종태 장로
새신자관리팀장	정경현 집사

273 경산교회 당회, “제729회 당회록”(2001. 12. 16).

재정후원팀장	양일용 장로
기도후원팀장	김정수 장로

한편 교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2009년도 조직은 다음과 같다.²⁷⁴

교역자 주필돈 강도사
위원장 설천복 장로
총 무 이상진 집사

4. 전도폭발운동

경산교회에서 전도폭발사역이 시작된 것은 2002년 1월부터이다. 특별전도 위원회내 한 팀으로 발족되었다.

먼저 ‘전도폭발’이란 무엇인가? 국제 전도폭발 1단계 훈련교재 제4 개정판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는 ‘인구폭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제 까지 상상조차 못해본 비율로 세계인구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인의 증가는 인구증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는 곱셈법으로 증가하는데 교인들은 덧셈법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곱하기 증가를 하는데 교회는 더하기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따라잡을 희망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영적배가(靈的倍加, Spiritual Multiplication)를 하는 것이다. 이 일에는 평신도가 포함되어야한다.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가 나서야하는 것이다. 전도폭발은 인구폭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다. 집안 식구, 이웃, 친구, 친척, 직장동료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은혜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엄청난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핵연료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뒤나 메이스(다이너마이트 능력)로 역

274 『경산교회요람』 2009, 50.



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폭발력이 된다면 사람들을 미혹하여 혼돈에 빠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고 구름떼 같은 새신자의 무리들을 탄생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책임과 특권을 깨달은 평신도들의 수가 급증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는 현상이다. 매년 더 많은 신자들이 훈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교회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신나는 일은 교회가 부흥하고 훈련받는 평신도가 늘면서 그 성장률이 실제로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대 팀장에는 김종태 장로가 담당하였다. 지도교역자는 박세봉 담임목사, 총무에는 이상진 집사이다.

전도폭발팀은 철저한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훈련자 수는 1기 7명, 2기 15명, 3기 22명, 4기 30명, 5기 16명…(이하 생략) 등으로 전체훈련자 150명으로 2007년까지 년 1회 이상 실시하였다. 1단계를 수료하면 2단계 교육을 받게 된



제1기 전도폭발훈련 III 1단계 수료기념 2001.10.7

다. 훈련받은 사람은 경산전역에 나가서 전도하였고 훈련받은 사람은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전도의 기법이 확실히 달라졌다. 주일예배시간 새신자 환영 때 보면 전도자의 대부분이 전도폭발 수료자였다.



의성군 사곡면 전도수련회의 복음제시 모습(2002. 7)

5. 태신자 전도운동

경산교회에서 태신자 전도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3년 4월이었다. ‘태신자’는 어머니가 아이를 품은 모양의 태(胎)자와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성장시킨다는(信), 즉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잉태하고 기도하여 출생시킬 뿐만 아니라 헌신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영적, 육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태신자 전도이다.

2003년 4월부터 2008년 까지 매년 실시하였다. 이 기간에는 박세봉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온 교인이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하였다. 태신자 전도를 다른 이름으로 ‘온 교인이 참여하는 새 생명 축제’라고 하였다. 조직은 2002년부터 2006년 까지는 위원장에 박세봉 담임목사, 총무는 김종태 장로가 담당하였다. 2007년, 2008년은 위원장에 박세봉 담임목사, 부위원장은 김종대 부목사가 담당하였다. 이 운동으로 많은 새생명 전도가 이루어졌고 전교인이 일치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강력한 기도후원이 있었다. 특별새벽기도, 산상기도, 금식릴레이기도, 도고기도 등 기도운동과 병행한 전도운동이었다.

참고로 2007년 새 생명 축제 주요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새생명 축제 발대식

<2007 새 생명축제 주요일정>

- 3/18(주) 새 생명초청주일 선포식
- 3/25(주) 새 생명 예비 작정일
- 3/28(수) 수요예배 후 운영위 전체 산상기도회
- 4/1 (주) 새 생명 1차작정일
- 4/2 (월)~7(토) 새 생명축제 릴레이금식기도회 시작(도고기도회 중심)
- 4/8 (주) 새생명 2차 작정일, 부활절연합예배, 새생명축제 오행시 광고
- 4/15(주) 새 생명전도집회, 전도폭발팀 가동, 태신자 전도엽서보내기
- 4/20(금) 조별 땅 밟기 기도회, 5.5.5운동 전개, 금요특별집회
- 4/27(금) 새 생명축제 오행시 발표회
- 5/4 (금) 새 생명축제 발대식
- 5/13(주) 새 생명 전도 집회(남전도회 헌신예배), 목요무료급식
- 5/18(금) 금요심야기도회 간증집회
- 5/20(주) 주일 노방전도
- 5/25(금) 금요심야기도회 특별집회
- 5/27(주) 짹 가정 초청주일, 가족찬양예배
- 5/30(수) 3일 특별새벽기도회, 수요특별집회



6/2 (토) 새 생명축제 예행연습, 미용 및 한방의료봉사(영신병원의료팀)

6/3 (주) 새 생명 초청의 날

또한 준비과정으로 4월 13일과 5월 18일에는 새 생명축제 전도간증집회도 개최하여 전도의 사명과 무장을 든든히 하였다.

6월 3일 드디어 새 생명축제 당일은 새신자위주의 특별한 순서의 예배를 드리고 선물과 푸짐한 점심식사가 있었다.



새 생명 초청의 날
(태신자 전도운동)





GOD I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을 위한
만남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행·사·안·내

일시 : 2005년 6월 12일(주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3시

장소 : 경산교회당 (054) 811-7194

“하나님에 사랑을 아끼며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가 하면 영광의 일과
영광을 알게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3:16)

God i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을 위한
만남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봄으로의 초대”

행·사·안·내

일시 : 2006년 5월 28일(주일) 오전 9시, 11시 30분
장소 : 경산교회당

“하나님의 사랑을 아끼며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가 하면 영광의 일과
영광을 알게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3:16)

2007 새생명축제 전도관중집회

“부흥”

**주여!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물러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봉을 헤기하는 일을
마치려 힘써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키울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20:24)

4월 13일
최선자 권사 (여수교회)

5월 18일
박애녹 집사 (온누리교회)

일시 : 2007년 4월 13일(금), 5월 18일(금) 밤 8시 30분
장소 : 경산교회 (053) 811-7194

2007 새생명 축제

당신을 가족처럼 편안한
교회로 초대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일시: 2007년 6월 3일(주일)
장소: 경산교회 본당
시간: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30분

기도와 전도축제

예수생명 큰잔치

3/30(주)~5/31(일)

◆ 2008년 예수생명 큰 잔치 일정 ◆

3/30(주)
예수생명 큰 잔치 선교식
3/31(일)~4/ 2(일)
교역자 30주 금식기도 수련회
4/ 7(일)~4/18(일)
교역자 이웃음식 기도회
4/21(일)~4/25(일)
봉직자 기도회
· 항로 기도회 : 4/21(일)~22(일)
· 전시 기도회 : 4/23(수)~24(목)
· 영접집사 기도회 : 4/28(일)~29(일)
특별 세미나(교역자)
작성자 30주 금식
전통집사 기도회
전도집행자 회의
전도 집행기간
예수생명 큰 잔치

5/3(화) “교역자 날짜파
성모니 면도기
면모 면도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기독교와 민족과를
교차지 아니하나?”

● 각 기관 및 전도회 기도일정

1. 예전기도회 : 6/2(화) 2. 예전기도회 : 6/1(화) 3. 예전기도회 : 6/1(화)
4. 예전기도회 : 6/2(화) 5. 예전기도회 : 6/1(화) 6. 예전기도회 : 6/1(화)
7. 예전기도회 : 6/2(화) 8. 예전기도회 : 6/1(화) 9. 예전기도회 : 6/1(화)
10. 예전기도회 : 6/2(화) 11. 예전기도회 : 6/1(화) 12. 예전기도회 : 6/1(화)
13. 예전기도회 : 6/2(화) 14. 예전기도회 : 6/1(화) 15. 예전기도회 : 6/1(화)
16. 예전기도회 : 6/2(화) 17. 예전기도회 : 6/1(화) 18. 예전기도회 : 6/1(화)
19. 예전기도회 : 6/2(화) 20. 예전기도회 : 6/1(화) 21. 예전기도회 : 6/1(화)
22. 예전기도회 : 6/2(화) 23. 예전기도회 : 6/1(화) 24. 예전기도회 : 6/1(화)
25. 예전기도회 : 6/2(화) 26. 예전기도회 : 6/1(화) 27. 예전기도회 : 6/1(화)
28. 예전기도회 : 6/2(화) 29. 예전기도회 : 6/1(화) 30. 예전기도회 : 6/1(화)

● 각 기관 및 전도회 기도일정
1. 예전기도회 : 6/2(화) 2. 예전기도회 : 6/1(화) 3. 예전기도회 : 6/1(화)
4. 예전기도회 : 6/2(화) 5. 예전기도회 : 6/1(화) 6. 예전기도회 : 6/1(화)
7. 예전기도회 : 6/2(화) 8. 예전기도회 : 6/1(화) 9. 예전기도회 : 6/1(화)
10. 예전기도회 : 6/2(화) 11. 예전기도회 : 6/1(화) 12. 예전기도회 : 6/1(화)
13. 예전기도회 : 6/2(화) 14. 예전기도회 : 6/1(화) 15. 예전기도회 : 6/1(화)
16. 예전기도회 : 6/2(화) 17. 예전기도회 : 6/1(화) 18. 예전기도회 : 6/1(화)
19. 예전기도회 : 6/2(화) 20. 예전기도회 : 6/1(화) 21. 예전기도회 : 6/1(화)
22. 예전기도회 : 6/2(화) 23. 예전기도회 : 6/1(화) 24. 예전기도회 : 6/1(화)
25. 예전기도회 : 6/2(화) 26. 예전기도회 : 6/1(화) 27. 예전기도회 : 6/1(화)
28. 예전기도회 : 6/2(화) 29. 예전기도회 : 6/1(화) 30. 예전기도회 : 6/1(화)

● 각 기관 및 전도회 기도일정
1. 예전기도회 : 6/2(화) 2. 예전기도회 : 6/1(화) 3. 예전기도회 : 6/1(화)
4. 예전기도회 : 6/2(화) 5. 예전기도회 : 6/1(화) 6. 예전기도회 : 6/1(화)
7. 예전기도회 : 6/2(화) 8. 예전기도회 : 6/1(화) 9. 예전기도회 : 6/1(화)
10. 예전기도회 : 6/2(화) 11. 예전기도회 : 6/1(화) 12. 예전기도회 : 6/1(화)
13. 예전기도회 : 6/2(화) 14. 예전기도회 : 6/1(화) 15. 예전기도회 : 6/1(화)
16. 예전기도회 : 6/2(화) 17. 예전기도회 : 6/1(화) 18. 예전기도회 : 6/1(화)
19. 예전기도회 : 6/2(화) 20. 예전기도회 : 6/1(화) 21. 예전기도회 : 6/1(화)
22. 예전기도회 : 6/2(화) 23. 예전기도회 : 6/1(화) 24. 예전기도회 : 6/1(화)
25. 예전기도회 : 6/2(화) 26. 예전기도회 : 6/1(화) 27. 예전기도회 : 6/1(화)
28. 예전기도회 : 6/2(화) 29. 예전기도회 : 6/1(화) 30. 예전기도회 : 6/1(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실시하여 온 새생명축제
(태신자 전도운동)



제4절 새 예배당 건축

1. 새 예배당이 건축되기 까지

화강석 예배당이 건축된 지(1950. 3. 5 현당) 어언 59여년이 흘렀다. 새 시대에 맞게 새 예배당 건축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어왔다. 우선 드넓은 공간을 가진 예배당이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 시대에 맞게 특히 청소년들이 활동 하기에 편리하고 방송시설 등 문화욕구도 충족되어야 했다. 또한 오랜 세월 임시미봉책으로 필요에 따라 수리한 결과 곳에 따라서는 악취와 전기누전의 위험요소도 많았다. 그리하여 예배당 강단 뒤로 확장해 보기도 하였으나 역부족 이었다.

1983년 1월 3일에 개최된 제567회 제직회록(회장 이기봉 목사)에 의하면 경산교회 시설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여 자연적으로 그 기능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 1월 10일에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건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날 이기봉 담임목사 사회로 당회실에서 전형위원회가 소집되어 건축위원을 선정하니 다음과 같다.

고 문 이기봉 담임목사

위 원 장 전성문 장로

서 기 소병준 집사

기장회계 이문수 집사

출납회계 김정수 집사

총 무 박달현 집사

위 원 박종길 장로, 방태호 장로, 안문식 장로, 양일용 장로,

김 번 장로, 박해동 장로, 신동욱 집사, 정주성 집사,

이재홍 집사, 김종태 집사, 신순길 권사, 김분준 권사,

강인수 집사, 김재수 집사, 허 원 집사, 박병호 집사,

이승규 집사, 박용호 집사, 박봉서 집사, 박의순 집사,



김종태, 배석윤은 1998년 11월 27일에 경산교회 제25대 장로로 장립하였다. 이로서 시무장로가 12명으로 늘어났다.



김종태장로



배석윤장로



전성문 원로장로



노칠근집사



박의순집사



김기한집사



배주이권사



김혜승권사



박정욱 은퇴권사



이정화 은퇴권사

제5장 제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번역을 총괄한다.
2. 도리 오래니 도덕상 부끄러움 양지한다.
3. 교우를 살피하여 위로, 교통, 강호한다.
4. 교인의 선양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 목방회 상방향 자리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6장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함께(승격)하여 일정 돈강한 자를 친교하여
한자와 장년 자와 과제와 고아와 고른 한난당한 자를 허물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급한 구제비와 낭만 예금을 수납 지출(貯納 支出)한다.
(법 6:1~3)

제3장 제3조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구하되 영원자와 곤난을 당하는 자와
영악한 교인을 중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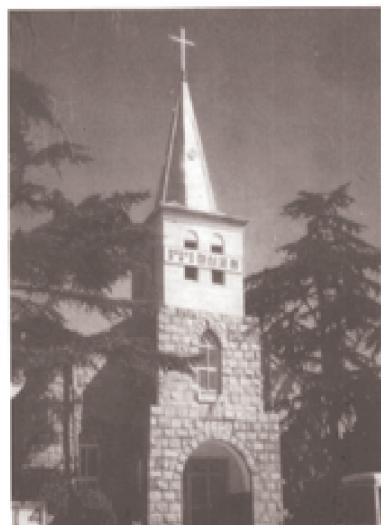
임직 (장로) : 김종태, 배석윤

(집사) : 노칠근, 박의순, 김기한

(권사) : 배주이, 김혜순

원로장로추대 : 전성문

권사 은퇴 : 박정욱, 이정화



● 일시 : 1998년 11월 27일 (금) 오후 2시

● 장소 : 경산 교회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 경주시 삼복동 80번지
TEL. (053) 811-7193



이순자 집사, 주옥희 집사, 이경호 선생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현금을 4년간 적립하여 건축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건축기금을 적립하여왔다.²⁷⁵ 예배당 건축의 위치는 2000년 11월 26일에 개최된 제716회 당회록에 의하면 현재 교회구내에서 건축하기로 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개최된 건축위원회에서 확인하였다. 2001년 2월 14일 경희대 건축공학부 이은석 교수를 초빙하여 자문회를 열었다. 가장오래 담임목사로 시무한 이만천 목사(1971. 11. 6~1986. 6. 16)의 차남이기도 하다. 2001년 7월 11일에 개최된 당회록에 의하면 건축위원장 전성문 장로가 제안한 교회건축을(지하 1층, 지상 3층, 약600평 규모 약 15억원 상당)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가결하였다. 2001년 7월 22일 주일에 광고하여 7월 29일 주일에 위의 안을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²⁷⁶ 한편 그동안 수시로 건축현금을 드리고 교회 각기관에서도 절약하여 재정을 운영하여 연말이면 잔고를 건축현금으로 바쳐왔다. 이제 2002년 4월 14일은 온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현금을 작성하였다.²⁷⁷

2002년 3월 17일 선우종합건설(주)을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출하게 되었다. 드디어 2002년 3월 19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2년 3월 31일 2부 예배후 온성도가 모여 기공예배를 교회앞뜰에서 드렸다.

<새 예배당 건축 기공예배>

사회 박세봉 목사

북 도		다같이
찬 송	245	다같이
기 도		건축위원장 전성문 장로

275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1995. 10. 29).

276 주보 제92권 제30호(2001. 7. 29).

277 주보 제93권 제15호(2002. 4. 14).

성경봉독	왕상 5:1-5	사회자
설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시다	박세봉 목사
건축준비 경과보고		건축위원회 서기 소병준 장로
소개	설계자, 시공자, 현장감독	사회자
찬송	246	다같이
주기도		다같이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준비 경과보고>

보고자 ; 건축위원회 서기 소병준 장로

1993. 1. 10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건축위원회 방족 이후 2000년 말까지 기도로 기금조성하다.
2000. 12. 31 현 부지에 예배당 중축기로 하고 전문기를 초청 자문받기로 함
2001. 1. 14 경희대 건축공학부 이은석 교수 초청 자문회 갖다.
2001. 7. 15 건축위원회에서 결의된 규모와 형식을 공동의회에서 승인 가결하다.(연 6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콘크리트 현대식 건축으로 건립하기로 함)
2001. 7. 29(주) 예배당 건축 건으로 공동의회 개최
2001. 9. 23 설계자 이은석 교수, 감리 전병렬 집사로 선정하여 설계용역 계약체결하다.
2002. 1. 20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기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입찰공고 2002년 2월 3일
2) 현장설명 2002년 2월 7일
3) 입찰서류마감 2002년 2월 25일 17시까지
2002. 3. 13 최종시공자 선정하다.



(주)선우종합건설 대표자 오상두

2002.3.19 공사도급 계약체결하다.

2002.3.31 현재 기공예배 드리다.

2. 건축 공사

드디어 역사적인 경산교회 예배당공사가 시작되었다. 선정된 선우종합건설(대표 오상두)에서 예배당 구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여러 해 준비된 상태라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갔다. 공사 기간 내 주일학교 각부는 시내 몇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새 예배당은 콘크리트 시멘트 철골로, 지붕은 시멘트로 평평하게 하고 약 6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 지하는 식당, 시므온실, 안나실, 남녀화장실, 기계실, 창고 등이 있고 1층에는 교사준비실, 자모실, 소예배실, 세미나실, 남녀화장실 등이 있다. 2층에는 예배실, 새가족실, 교역자실, 목양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예배실, 방송실, 재정부실, 찬양대연습실, 화장실 등이 있다. 옥상에는 십자가탑과 창고가 있다. 이 건축을 위해 교육관과 관리집사 사택, 화장실 등을 철거하고 관리집사 사택은 구내에 있는 구 담임목사 사택으로 옮겨졌다. 관리집사 사택 옆은 새가족 교육실로 쓰이고 있다.

현재 구 본당을 벤엘관이라 이름 지어 유년부에서 사용하고, 새예배당 뒤에 있는 건물 1층은 유치부실로, 2층은 카페로 사용하고 현재 관리집사 사택 2층에는 당회실과 사기편찬실이 있다. 관리집사 사택 옆은 새가족 교육실로 쓰이고 있다. 벤엘관에 붙은 뒤쪽 건물은 1층은 특별전도위원회실로 2층에는 전도회 사무실로 3층은 선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2003년 3월 16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한편 경산교회 예배당이 대한 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입선작으로 채택되어 2003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집에 기재되었다. 또한 2009년 4월 25일자 부산일보 문화면에도 경산교회 새 예배당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경산교회 예배당이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입선작으로 채택되어 <2003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집>에 기재되었다.

부산일보

한국과 세계의 철학의회

동고 전축을 보다

④ 경북 경산시 경산교회

요란한 치장 없어 더 친근한 교회

서민층과 교회 공동체를 주제로 한 글은 그 고급화된 문체로 독자를 놀라게 했다. 무려 10년이나 걸리고 1940년에야 완성된 글이었다. 그 글은 당시 서민층의 생활상을 잘 드러낸 글로 노동자·농민·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서민들이 그들의 삶을 펼쳐놓았던 글이다. 그 글은 당시 서민들이 그들의 삶을 펼쳐놓았던 글이다. 그 글은 당시 서민들이 그들의 삶을 펼쳐놓았던 글이다. 그 글은 당시 서민들이 그들의 삶을 펼쳐놓았던 글이다.

급 등에 부분적으로 탐색으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 같은 전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충분한 내용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충분한 내용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충분한 내용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충분한 내용은 아닐지도 모른다.

여호는 빛이 레사동과 같다. 신자
가에 끊임없이 예수를 모시기 부정
한, 수업으로 끊어지는 그 빛들, 다
시 전을 상상해 성령의 활동을 묶
여 일어나게 하는 속자의 하루빛이 부정
해 난관사된다. 속자의 외부에서
들어서 애하는 예전에 감수되었던

교회가 역할 공연인 책에 속설은
경험 부족으로 모방으로 전개되며
우리 모든 시선이 집중트로의 만남이

3차, 세련된 현대식 디자인

3. 지혜성 담아
인의 대화 나누는 듯

다. 최근 500여명을 암울하기. 분위기
가 연민적이었다. 풍물과 함께 헌
시를 들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
들은 귀신이다.

한동훈교수가 구한 것은 1960년에
여전 풍물 예술관 전시장을 운영하
던 주제는 대중극이기도 하다. 지
금 고려시대에서 고도 송을 놓고 여
성 등 유구한 풍물이지만, 전통무용
으로서 흥을 키우기 고려되었던 예전
다. 예전 풍물 어울리는 서정시와
음악의 정성이 깊이 배어 있는 곳
에서 희미 걸려온 듯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당신은 경찰이라고
주 서 있는 신·구의 두 경육들이
언제까지 알고 아무래도. 과거와
지금 구현의 대회를 나누는 듯하
서실 이 부분은 이론적 교수가
되지 않고 행정 부분이다. 새 교

그리고 어떤 경제대비론 자본
재화를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두 공장과 소들을 두
직접 허락해 준 것이다.
용당장에 있는 것과는
달리, 기아면 생활기준을 두고
여기서 고민하지. 제작을 갖고
제작을 갖고 고민하는 것과는
달리, 대체로 생활기준을 두고
생활기준을 두고 고민하는 것과는
달리, 대체로 생활기준을 두고
생활기준을 두고 고민하는 것과는
달리, 대체로 생활기준을 두고
생활기준을 두고 고민하는 것과는

방에서 다시 향을 봤었고,
입술을 거자 [keyinCin](#)

2009년 4월 25일자 부산일보 문화면에
실린 경산교회 기사



3. 새 예배당 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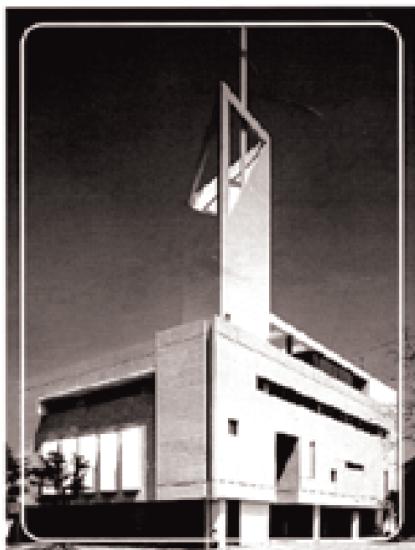
2003년 5월 3일(토) 오후 2시 현당 및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현당예배와 함께 장로집사장립 권사취임식이 함께 드려졌다.



현당 및 임직 감사 예배

임직받으시는 분들

- ◆장로장립 : 정경현 설천복 노철균
- ◆집사장립 : 김홍배 이상진 이원국
박영태 김호근 문기찬
이만태 이경우 최기문
송진숙
- ◆권사취임 : 김자선 강순덕 손덕아
김순자 정정자 박은애
유남숙 김예숙 죽정희
유경생



일시 2003년 5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경 산 교 회 당



경 산 교 회

경상북도 경산시 삼복동 80번지 TEL:811-7194 FAX:815-7144



현당 및 임직 감사 예배

사회: 당회장 박세봉목사

● I 부 : 예 배

목 도	다 갈 이
찬 송	다 갈 이
1. 내주의 나라와 주께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교회를 늘사랑 합니다.	
2. 내주의 교회는 흰성과 같아서 눈봉자 같아야 하며 사랑합니다.	
3. 이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생명 다하기까지 늘봉사 합니다.	
4.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맷은연약을 늘좋아 합니다.	
5. 하늘의 영광과 빼푸신 축복이 진리의 함께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 도	(제자교회) 김재봉목사
성 경 봉 독	행 9:31, 딛후 2:15 (경산남부교회) 손기봉목사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휼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 9:31) 네가 진리의 말씀을 들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찬 양	연합찬양대
설 교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남천교회) 김대환목사

● II 부 : 현 당 식

예배당건축경과보고	(건축위원회) 전성문장로
열 쇠 증 정	(건축위원회) 전성문장로
현 당 기 도	(당회장) 박세봉목사
공 포	(당회장) 박세봉목사
감사패 및 공로패증정	(설계/경희대학교 교수) 이문석진사 (시공/선우종합건설 대표) 오상우목사 (행장소장/선우종합건설) 열병철진사 (건축 위원장) 전성문장로 (건축 감독) 이문수장로 (건축 감리) 전병렬진사
축 사	(새경산교회) 서정호목사



● III부 : 임직식

서 약 (당회장) 박세봉목사

◆ 임직자에게

-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 책으로 믿습니까?
-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충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놓고 따르겠습니까?
- ③ 본 장로회 정치와·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 ④ 본 경산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복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 ⑤ 본 경산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 본교회 교우들에게

경산교회 교우들이여 「정경현, 설천복, 노칠군」씨를 본 교회의 장로로, 「김용배, 이상진, 이원국, 박영태, 김호근, 문기찬, 이만태, 이경우, 최기문, 송진숙」씨를 집사로, 「김자선, 강순덕, 손덕아, 김순자, 정정자, 쪽은애, 유남옥, 김예옥, 곽정희, 유경생」씨를 본 교회의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돌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장로안수기도 (당회장) 박세봉목사

집사안수기도 (당회장) 박세봉목사

권사취임기도 (삼성교회) 석광희목사

정경현, 설천복, 노칠군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장로로, 김용배, 이상진, 이원국, 박영태, 김호근, 문기찬, 이만태, 이경우, 최기문, 송진숙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집사로, 김자선, 강순덕, 손덕아, 김순자, 정정자, 쪽은애, 유남옥, 김예옥, 곽정희, 유경생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권사로 세워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권 면 임직반은 이를에게 (금곡교회) 이종형목사

축 사 본교회 교우들에게 (경산동부교회) 이승평목사

기념품증정 이기룡목사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임직자가 교회에

달 사 청경현장로

광 고 양일용장로

활 총 다 감 이

1. 나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행통 구원 얻도록 잘인도 했이라
2. 부르심 받들어 내형제 설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정성 다하리
3. 주앞에 모든일 잘챙겨 하시고 이후에 주를 뵈울때 상받게 하소서
4. 나향상 깨어서 높기도 드리며 내믿음 변치 않도록 날도와 주소서 -아멘-

축 도 (신천교회) 이득수목사

폐 회 다 감 이



임직받으시는 분들

장로상법



장경한



설한비



노길근

집사상법



김구번



이상진



안원코



박영대



김호근

군사수법



김차선



김순애



손명아



김순자



조정자



권은애



유남숙



김애숙



권장희



유경선

광고

1. 아름다운 예배장을 건축하여 현관하게 꿈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 현관 및 임직 감사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오늘 바른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직자들과 경산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으나마 선물이 준비되었사오니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축 경과 보고

- 기공예배 : 2002년 3월 31일
- 입당예배 : 2003년 3월 16일
- 건축면적 : 건평 - 212평
연간평 - 625평
예배실 - 회식 이650석
- 설계 : 경희대학교 교수 이은식 설사
- 시공 : (주)선우종합건설 대표 오상무감사
- 감리 : 코아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병렬감사



제5절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1.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조직

2009년은 경산교회가 설립된 지 어언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한말 격동기에 설립하여 일제의 혹독한 탄압의 시련기를 지나 1945년 광복의 감격과 해방 후의 혼란기와 남북분단의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100주년 기념표어의 첫머리에 ‘은혜로 달려온 100년’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많은 역대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할 때 때문이다.

우선 경산교회 사기편찬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장로, 위원 정주성 장로와 ‘경산교회100년사’ 집필자 정주경 은퇴목사는 각 교회의 100년 기념사역을 조사해서 사역사례와 경산교회 100주년 사업위원회 규약초안을 2008년 4월에 최종안을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하였다.

2008년 5월 25일에 개최된 808회 당회에서 제출한 경산교회 100주년 사업위원회 규약초안은 안대로 반기로 결의하여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날 통과된 규약은 다음과 같다.

<경산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규약(안)>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경산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교회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 조정, 심의 및 시행하는 기능을 한다.

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당회원, 장립집사, 권사, 부교역자로 구성한다.(단,



서리집사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 및 고문은 다음과 같다.

명예위원장(담임목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1인, 고문

제6조(선정, 임기) 본 위원회 임원 및 고문은 당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당회
에서 정한다.

제7조(임원 및 고문의 임무)

명예위원장 -- 본 위원회 직무를 지도한다.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 한다.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서기 -- 본 위원회의 회록 및 서무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회계 -- 본 위원회 재정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고문 -- 본 위원회 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8조(주필) 경산교회 100년사를 집필하기위하여 당회에서 주필을 선정한
다. 필요에 따라 보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주필은 위원회에서 발
언권이 있다.

제9조(부서) 본 위원회 부서는 다음과 같다.

기념전도부 -- 100주년 기념예배, 기념전도 및 선교에 관한 일체를 담당
한다.

사기편찬부 -- 경산교회 설립 100년사 편집 및 100주년 전시회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기념사업부 --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제10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반회의 성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본 위원회 재정은 교회재정에서 충당한다.

제12조(전문 분과팀)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 분과팀
을 둘 수 있다.

순서

오후 2시

사회: 당회장 이기봉목사

I. 예배

목 도	송영	다 갈 이
기 원		사 회 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351장	다 갈 이
기 도	(경상봉주교회) 이승평목사	
성경봉독	시 118:12~19	(4월2회) 이상철목사
찬 양		성 가 대
말씀증거	교회 직원의행복	(경전교회) 서종대목사

II. 임직

임직서약 (임직자) 당회장

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성령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별자로 믿느노?

② 본 장로회 신조와 디스코드에서 선도체요 및 죄수호대통령은
신약 성경의 교통한 도리를 충족한 것으로 알고 성성한 바
음으로 받아 신봉하느노?

③ 본 장로회 정직과 친절조리와 예의로법을 청당한 것으로 승락
하느노?

④ 이 치고있 장로, 혹 친사, 혹 활사의 직통을 받고 하나님의 은
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영사를 향해 해
하기로 맹세하느노?

⑤ 본 교회의 회개과 연합과 상생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
세하느노?

교우서약 (교우일동) 당회장

① 이 지역회 회관들이 이 길흉여, 해악운세를 장로로, 노정장,
박의승, 남기한씨를 장사로, 배주이, 김해중씨를 헌사로 믿
고 성경과 교회 정직에 아름한 바탕 끌어서 주안에서 존경
하며 위로하고 북돋아가기로 맹세하느노?

안수기도 ① 장로를 위하여 당회장 (악수례)

② 집사를 위하여 당회장 (악수례)

취임 기도 권사를 위하여 (세정장교회) 서정호목사
공포 당회장
권면 ① 임직자에게 (금곡교회) 이종형목사
② 교우에게 (동광교회) 백우현목사

III. 원로장로 추대

원로장로추대 기념예달 중장 당회장
기도 당회장
공포 당회장

IV. 권사 은퇴

은회기념 예달 중장 당회장
기도 당회장
공포 당회장

V. 감사와 축하

예물증정 ① 교회가 임직자에게 양일용장로
② 임직자가 교회, 교역자, 선임자에게 배석윤장로
장로임직 기념폐증정 (경정장교회 회장) 이근신장로
축사 (남천교회) 김대환목사
축가
답사 임직자 대표 김종태장로
인사및광고 송석근장로
찬송 347장 다 갈 이
축도 (노회장) 배성화목사
폐회 (안녕히 가십시오) 다 갈 이



제13조(부칙) 본 위원회의 규약수정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본 위원회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회의규칙 및 결의에 의한다. 제반업무를 완료한 후 당회결의로 해산한다. 해산시 본 위원회 모든 문서 및 사진, 기타자료 등은 사기편찬 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재정에 관한 일체는 교회재정부로 이관한다.

본 규약은 당회결의 한날로 시행한다.

2008. 6. 5.(목)

(기안자 : 경산교회 사기편찬위원회)

이어서 규약에 따라 당회에서 위원장에 박해동 장로, 부위원장에 정경현 장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경산교회 100년사’ 편찬 주필에 정주경 목사를 선정하여 ‘경산교회 100년사’ 집필을 의뢰하였다.

선출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명예위원장 박세봉 담임목사

위 원 장 박해동 장로

부 위원장 정경현 장로

서 기 박영태 집사

회 계 김재수 집사, 이원국 집사

위 원 장 박해동 이문수 신동욱 김정수 설천복 노칠균

집 사 박의순 방영원 이상진 이원국

권 사 이순자 곽은애 김애옥 곽정희

경산교회 100년사 주필 정주경 목사

2008년 6월 15일에 개최된 제808회 제1차 임시당회에서 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규약이 변경되어 조직 부서를 3개 부서에서 6개 부서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부서는 다음과 같다.

총무부, 예배부, 사업부, 편찬부, 안내부



부서조직은 다음과 같다.

사기편찬 신동욱 장로, 총무 설천복 장로, 이순자 권사

기념사업 이문수 장로, 총무 이상진 집사, 곽은애 권사

기념예배 김정수 장로, 총무 박의순 집사, 김애옥 권사

행사안내 노칠균 장로, 총무 곽정희 권사

서 기 박영태 집사

회 계 김재수 집사, 이원국 집사

기념사업위원회는 2009년 3월 12일(목)에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장소를 자모실로 옮겨 위원장 박해동 장로의 사회로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발족 및 헌신예배를 2009년 3월 29일 주일오후 찬양예배시 드리게 되었다.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발족 및 헌신예배(2009. 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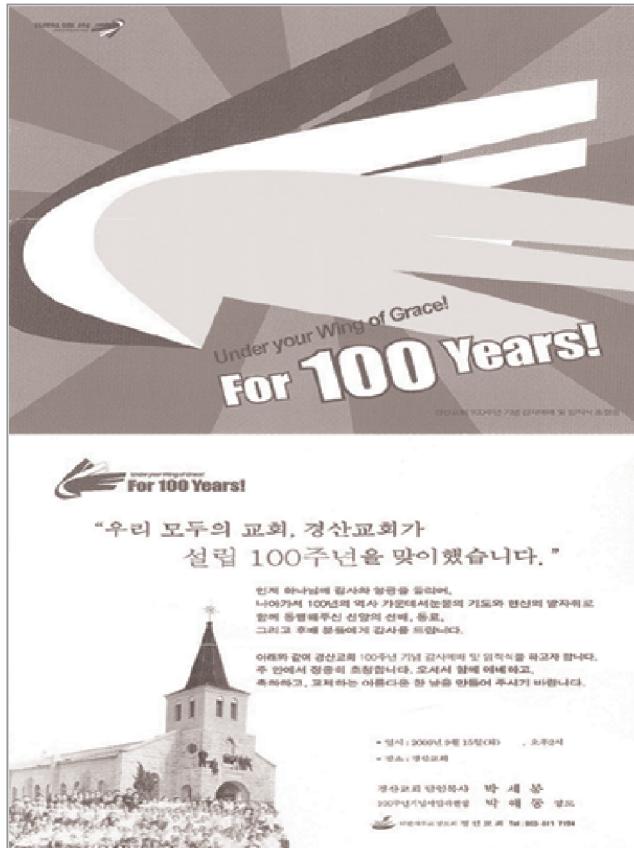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발족 및 현신예배>

인 도		박해동 장로
목 도	송 영	다같이
기 원		인도자
찬 송	210장	다같이
요리문답교독	제62문	다같이
(문) 제 사 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 사 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여섯 날을 허락하시고 제칠 일은 자기가 특별이 주 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기 도		이문수 장로
성경봉독	엡 1:22-23, 5:23(신311p)	서기 박영태 집사
특 송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일동
100년 사진 상영		
찬 양	온 세계 만민	호산나 찬양대
말씀증거	“교회의 생명”	정주경 목사
찬 송	208장	다같이
광 고		인도자
찬 송	212장	다같이
축 도		박세봉 목사
폐 회		성도의 교제

사회는 위원장 박해동 장로가 맡았다. 설교는 100년사 집필자 정주경 은퇴 목사가 담당하여 한국교회최초의 송천교회(소래교회)로 부터의 역사초기 경



산 및 경산교회의 역사, 설립연월일의 고찰 및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이 있었고 명예위원회 박세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식당에서 케이크 커팅(Cake cutting)과 온성도의 다과회 순으로 이어져 헌신을 다짐했다. 이 헌신예배를 기점으로 초청장 발송, 사진전시 등 본격적인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특별히 본위원회 서기 박영태 집사의 노고가 많았다.



경산교회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 초청장

2. 기념행사

(1) 지역주민초청 경로잔치

100주년 행사 가운데 가장먼저 시행된 것이 주민초청경로잔치이다. 교회설립 100주년 행사의 첫 사업으로 경로잔치를 실시하는 것은 경로사상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그들을 대접하고자 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신록의 5월을 맞아 5월 21일에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기도와 말씀에 이어 영화 ‘워낭소리’ 상영과 음악순서 후 푸짐한 점심식사와 고급타올 2매씩을 선물하였다. 여기는 신자나 불신자에 관계없이 초청하였다. 100주년의 첫 사업



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부터 하였으니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100주년 기념표어에도 ‘섬김으로 나아갈 100년’이 아니던가. 경산교회가 나아갈 앞으로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2) 표어선정

경산교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표어를 공모키로 하였다. 온 교인의 교회 설립 100주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100주년의 의의를 집약한 표어를 기대하면서 공모하였는데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되어 2009년 6월 28일 주일오후 찬양예배 시에 발표하여 시상하였다. 그 내용과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 | | |
|--|------------|
| 1등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선교로 달려갈 100년’ | (박영선 사모) |
| 2등 ‘100년의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경산교회’ | (박미영 자매) |
| 3등 ‘받은 은혜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비상’ | |
| | (김분준 은퇴권사) |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1등 작품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선교로 달려갈 100년’의 선교를 섬김으로 바꾸기로 하여 100주년 표어를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섬김으로 달려갈 100년’으로 최종결정하였다. 경산교회의 앞날의 지표를 표현했다 보겠다.

(3) 교회설립 100주년기념 사행시 짓기 대회

교회설립 100주년기념 사행시를 공모키로 하였다. 이는 교인의 마음을 100주년에 집중하게 함과 과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교회상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시제는 ‘경산교회’이다. 전체응모편이 82편에 이르렀다.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2009년 6월 28일 주일오후 찬양예배시간에 발표 및 시상하였다.



경산교회 100주년 기념 주민초청 경로잔치(2009. 5. 21)



<믿음상> 정영선 집사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예수님 사랑
교회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복시키시는 예수님 사랑

<소망상> 이희순 집사

경산교회 성도들아 백년 된 성도답게
산에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길 때
개로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되리라

<사랑상> 김분준 은퇴권사

경산교회 백주년 주께 영광 돌리세
산소망 산믿음으로 지켜온 교회
인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교회
오리치는 역사 속에도 날마다 승리하리
당선된 3편 모두가 은혜로운 내용이었다.

(4) 칠곡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초청 찬양예배

2009년 9월 6일(주) 오후 3시 찬양예배시에 경산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찬양예배에 칠곡교회 임마누엘 찬양대를 초청하여 찬양예배를 드렸다. 찬양과 더불어 라파 중창단의 찬양과 혼악 앙상블, 색소폰 앙상블 연주 등으로 온 성도가 큰 은혜를 받고 교회설립 100주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대구 칠곡교회 임마누엘 찬양대는 1994년 1월 3일에 창단하여 단장에 손병조 집사(피택 장로), 지휘자는 최현경 집사이다. 총 인원은 약 80명이다.



박세봉 담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지하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다과회를 열어 친교하며 100주년을 축하하였다.

경산교회 설립100주년 기념
열정의 찬양예배

2009년 9월 6일(주일) 오후 3시
 경산교회 본당
 칠곡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리파중창단 현악앙상블 색소폰앙상블

목도	-----	다같이
찬송	(91종)	다같이
요리문답교목	(제84문)	다같이
기도	-----	경경현 장로
성경봉독	시100:1-5(구876p)	다같이
말씀증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재동목사

임마누엘찬양대

- 내 주여 뜻대로
- 사모작
- 여호와는 위대하다

임마누엘 색소폰 앙상블

-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파 중창단

- 주여 당신발 아래
- 죽으면 죽으리라

임마누엘 현 악 앙상블

- 남마다 송쉬는 순간마다
- 잘 아름다워라

임마누엘찬양대

- 경배와 찬양
- 예수 이름으로
- 한국에서 만날때

광고 ----- 박세봉목사
 축도 ----- 박세봉목사

Solo : 벤자영
 Solo : 경민지
 Solo : 김희준/손병조
 Drum : 배순호
 Vn. : 김기수
 Vla. : 서희정
 p.f. : 한은민

칠곡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초청 찬양예배 (2009. 9. 6)

(5) 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찬양음악회

2009년 9월 13일 주일오후 찬양예배시 교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본 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음악회가 있었다. 이 찬양음악회의 특징은 찬양과 함께 교회의 설립에서부터 교회가 지나온 100년을 영상과 함께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특히 4번째 순서로 수난기(1922~1945) 무언극(History maker)을 청년 대학부의 연출로 일제의 혹독한 압박과 고난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



혜로 해방을 맞이하는 감격을 소재로 하여 매우 감동적으로 함께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마지막 순서는 헨델(George Fredick Handel)의 메시야곡 가운데 할렐루야의 우렁찬 합창으로 음악회를 마쳤다.

이날의 행사는 1부는 선교사로 파송대기중인 박종규 목사가 사회와 설교를 맡아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부는 음악회로 사회는 이종석 집사가 담당하였고 마친 후 박세봉 목사의 기도로서 은혜로운 음악회를 마쳤다. 이날 지휘는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인 김형식 집사가, 반주에는 피아노 임은영 사모, 오르간은 소영이 집사가 맡아 수고하였다.



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찬양음악회(2009. 9. 13)



교회설립100주년 기념찬양음악회



일시 : 2009년 9월 13일(주일오후예배)

장소 : 본당

(교회의 설립부터 교회가 지나온 100년을 영

1. 태동기 - 영상

(~1908)

2. 초창기 - 창립 ————— 우리는 주의 교회 ————— 연합찬양대
(1909~1915) 주의 성령 안에서

3. 확립기 - 중창 ————— 내 영혼의 그늘하 걸은데서 ————— 안나화
(1916~1921) 내 주를 기과이
- 창립 ————— 그려도(송용희 작사 신상우 작곡) ————— 김형식집사
기록한성(Stephen Adams)

4. 수난기 - 무연극 ————— History Maker ————— 청년대학부
(1922~1945)

5. 재건기 - 석소문언주 ————— 예수 나를 위하여 ————— bless 석소문 양상률
(1946~1953) 그 침 말은 우리 구주
- 남성중창 ————— 축복하노라 ————— 청년회, 남전도회
넉넉히 이기느니라

6. 발전기 ————— 파스로랄 중창단
(1954~1968) 여성독창 - 하나님의 사랑(AMOREI) ————— 걸은지
남성독창 - 내 평생에 가는길(H.C.Spaifford) ————— 김현준
중창 ————— 사랑(우효원)
- 이 눈이 아무증거 아니겠어도(Blowry)
-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라(총서영 전곡)

7. 전환기 - 합창 ————— 우리 함께 보리경 ————— 연합찬양대
(1969~현재) 주 하나님 크시도다
합창부아

8. 광고 ————— 음영목사님

9. 축도 ————— 음영목사님

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찬양음악회 순서지(2009. 9. 13)



유태삼은 1988년 12월 22일 협동장로로 임명되어 1991년 12월 29일까지 시무하였다.



김종태 장로



배석윤 장로



유태삼 협동장로

3. 장립집사와 권사

① 장립집사

허남영 집사는 1987년 4월경 경산중부교회로 이명하여 갔다.

신동욱, 소병준, 박달현, 박해동, 이문수, 정주성은 1987년 11월 26일에 장립집사로 임직되었다. 박해동 집사는 1992년 10월 8일에, 신동욱, 소병준, 박달현, 이문수, 정주성 집사는 1994년 4월 28일 장로로 임직되었다.

이재홍, 김종태 집사는 1992년 10월 8일에 장립집사로 임직되어 시무중 이재홍 집사는 1994년 4월 28일에 장로로 임직되었고 김종태 집사는 1998년 11월 27일 장로로 임직되었다.

김정수, 허원, 배석윤, 유재호, 이인수, 설천복은 1994년 4월 28일 장립집사로 임직되었다. 배석윤 집사는 1998년 11월 27일 장로로 임직되었다.

노칠균, 박의순, 김기한은 1998년 11월 27일 장립집사로 임직되었다.

한편 강경구는 1987년 12월 20일에 협동집사로 임명되어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무하며 찬양대 지휘를 맡아 수고하였다.

박종수는 1988년 12월 22일에 협동집사로 임명되어 1989년 6월 까지 시무하였다.

정경현은 1995년 6월 25일 협동집사로 임명되었다.



(6) 100주년 기념성회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말씀집회가 2009년 9월 14일(월)부터 9월 16일(수)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개최되는 저녁 집회가 개최되었다. 본 교회 출신이며 미국 미시간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효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였다.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다른 순서를 생략하고 밤 11시까지 열렸는데도 자리를 매운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여 열심히 참석하여 신앙의 재무장과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성회로 말씀을 경청하며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였다. 매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부흥집회>

9월 14일 저녁 7시 30분

사회 박세봉 목사

설교 신효철 목사

북 도		다같이
찬 송	545장	다같이
기 도		박해동 장로
성경봉독	막 5:21-36	사회자
말씀선포	“믿기만 하라”	신효철 목사
찬 송	546장	다같이
광 고		사회자
축 도		설교자

9월 15일 저녁 7시 30분

사회 박세봉 목사

설교 신효철 목사

목	도		다같이
찬	송	220장	다같이
기	도		이문수 장로
성경봉독		요 1:40-51	사회자
말씀선포		“칭찬하는 밝은 공동체”	신효철 목사
찬	송	620장	다같이
광	고		사회자
축	도		설교자

북 도		다같이
찬 송	455장	다같이
기 도		이문수 장로
성경봉독	살전 5:16-18	사회자
말씀선포	“21세기 성도의 기본자세”	신효철 목사
찬 송	463장	다같이
광 고		사회자
축 도		설교자

(7)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① 기념 감사예배

드디어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다. 경산교회 설립기념일이 9월 16일이나 형편상 하루를 당겨 9월 15일(화) 오후 2시에 기념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경산교회 설립 100년을 돌아켜 보면 구한말의 격동기를 거쳐 일제의 모진 박해와 6.25전쟁, 교회의 분열 등을 극복하고 오늘날에 이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동시에 오늘의 감격은 100년 전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복음전파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열매요 기도의 열매이기도 하다.

예배는 당회장 박세봉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설교는 경산교회 출신이며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원로목사이며 현재 선교사 파송기관인 씨드 선교회(Seed International) 국제대표인 이원상 목사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나도 너를 보내노라”라는 제목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날은 임직식을겸하여 드려졌다. 장로장립에 박의순, 집사 장립에 박지순 강종수 전병렬, 권사 취임에 박영순 서현자 이희순 이순임 김태순이었다.



설립10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사회하는 박세봉 담임목사



경산교회 설립100주년 기념감사예배에서 설교중인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원로목사

4.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및 임직식 식순

1부: 감사예배

목도		사회 : 박세봉 담임목사
찬송	208장	다같이 다같이
기도		세정호목사(새경산교회)
성경봉독	요20:19-23	석광희목사(삼성교회)
찬양		찬양대
설교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천상죽사(워싱턴중앙장로교회)
기도		설교자
100주년 기념사		박세봉 담임목사
100년 역사회고		전성문 원로장로
교회연혁 소개		신동욱장로
교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양일웅 원로장로

2부: 임직식

임직자 소개

세약 1 : 임직자에게(장로·집사·권사)

-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산임과 행위에 대하여 절제무오한 유절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 2) 본 장로회 신도와 목스러만스의 신도끼로 및 대소오리반들은 선구역성경과 교훈한 도리를 충실히 것으로 믿고 살상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 3) 본 장로회 장로와 권장드레와 예배모임을 정당한 것으로 숨기지마시오?
- 4) 본 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과 은혜를 떠지하여 전달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영사를 험시 펼쳐기로 서약합니까?
- 5) 본 교회의 회생과 연합과 상생 등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사회자

세약 2 : 고우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신도들은 박이승씨를 장로로, 박지순 강종수 전병철씨를 집사로, 박양은 세현자 이희순 이순임 김태순씨를 권사로 믿고 성결과 교회정치에 기쁘게 바를 끓여서 주 안에서 즐겁하여 서로하고 폭넓기로 서약합니까?

사회자

안수기도

장로, 집사

식은땀당한 목사, 본교의 사무장도

악수례

안수위원

취임기도

사회자

공포

사회자

'나는 박희운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장로가되고 박지순 강종수 전병철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 집사가 되며
박양은 세현자 이희순 이순임 김태순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산교회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권면

1. 임직자에게

이종형목사(금곡교회)

2. 고우에게

김대한목사(남천교회)



3부: 축하, 감사, 폐회

장로임직폐전달

경청 장로회장

예물증정

1. 교회가 임직자에게

이문수장로

2. 임직자가 교회에

박지순목사

축사 1

임직자

이기봉 목사

축사 2

교회설립 100주년

전재규장로(대신대총장)

축가

박영국집사

감사

박의순장로

인사 및 광고

박해동장로(100주년사업위원장)

찬송

347장

다같이

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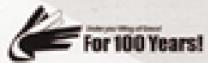
이승평목사(경산동부교회, 노회장)

폐회

다같이

5. 광고

- 1) 경산교회 설립10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온라인 가운데 거행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2)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외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3)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신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빠짐없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4) 100주년 기념 성회가 오늘저녁, 내일저녁 7시30분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여 온라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식: 신호월목사[마시간장로교회당임])



② 홈커밍데이(모교회 방문의 날)

기념예배 날 원근각처에서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히 경산교회에서 교역자로 수고하였거나 경산교회 출신의 성도들에게 안내위원이 꽃을 가슴에 달아주며 친교실로 안내되었다. 차와 과일 떡을 나누며 대화를 하고 교회버스 2대와 봉고차로 씨하우스(Sea house) 경산점에서 뷔페를 들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친교가 이어져 옛 추억의 이야기로 꽂을 피웠다.

100주년 기념감사예배 후에는 벤엘관(구본당)에서 친교의 모임을 가졌다. 정면 강단벽에는 “교회설립 100주년을 맞아 모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



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중앙에는 떡과 과일, 차와 음료 등이 차려진 가운데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서기 박영태 집사의 사회로 경산교회 출신으로 경산교회 첫 교역자인 정주경 목사의 개회기도와 박세봉 목사의 인사말씀 후에 참석자의 소감발표 등의 순서가운데 다과를 들며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벽에는 역대 목사의 사진과 연대별로 된 교회활동사진, 교인들의 자작미술품과 사진, 서예작품 등을 전시하였다. 특히 84세의 황덕영 권사의 서예작품이 돋보였다. 젊은 시절 주일학교 찬양대에서 활동하던 모습의 사진을 바라보는 백발이 된 장로, 권사들의 얼굴에는 추억의 한순간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여러 사람의 소감발표가 있었고 어떤 이는 여기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결혼식을 올렸다 등 추억의 시간이 끊이질 않았다.



홈커밍데이(모교회 방문의 날)



③ 10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신문기사

(1) 경산신문 2009년 9월 7일 기사

경산신문 2009년 9월 7일 월요일

경산교회 설립 100주년

“100년 역사, 지역 도움 없이 불가능했다”

지역교육 모체…계동학교 - 경산유치원 - 성경구락부 - 품스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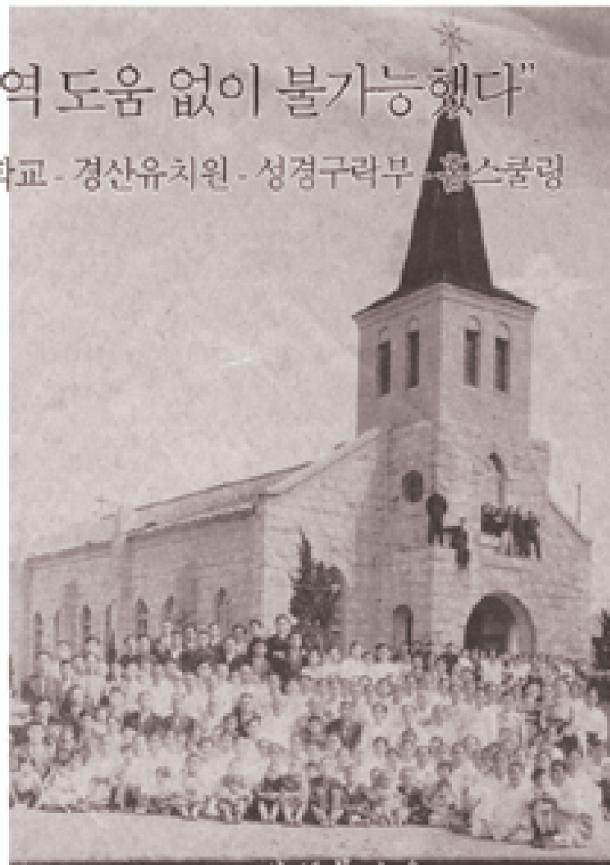


경산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일 하
루 전인 19일 오
후 2시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치

답에서 연다. 교회 측은 간소한 행사
를 위해 예초 시민회관을 빌려 음악
회를 열려던 계획을 하소했다. 100주
년 표어 '은혜로 달려온 100년. 성경
으로 달려온 100년'은 신도들이 공모
한 것.

경산시에서 최초로 100주년을 맞는
경산교회는 1909년 본 사립교회에서
불리의 지금의 자리에 '임복동교회'
를 세웠으며, 1937년 '경산읍교회'로
개명했다.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좌절
된 시 예배당은 광복 후 1950년 완공
된다. 당시 경산중앙국민학교 교사였
던 이종택(81세, 역사학자·공사인)
씨가 들에 새긴 '경산예배당'은, 예
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한 것과 한자중심 사회에서 한글
로 새긴 간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갖는다.

경산교회는 지역교육의 모태이기
도 한다. 1911년부터 교회에서 경영한
계동학교는 개교 16년 만에 일제의
식민지 교육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신교육에 힘쓰며 인재양성에 앞장섰
다. 1964년에는 계동학교 자리에 경산
유치원을 설립해 1980년까지 운영했
으며, 1993년 설립한 성경구락부는 성
경과 일반 학과 수업까지 병행하는
아학으로 기능했다. 지역교육 사례은
현대 기아대회와 함께 하는 품스쿨
링으로 이어지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민족우수성을 살고 자녀
를 먹으며 물물을 받는 것.



4. 18. 3. 4. 9. 4. 12. 15. 18. 19. 21. 26.

1909년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좌절했던 '경산예배당'이 광복 후 1950년에 완공됐다.

100년에 이 교회 달임을 맡고 있는
박세봉 목사(사진)는 "한 지역에서
100년의 역사를 간기까지 지역사회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100
년의 역사를 가진 성숙한 교회로서
전개적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교
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건물을 대
지는다면 예배당보다는 노인쉼터를
지어 노인복지에 힘을 보탤 생각"이
라고 말했다. 노인들과 노숙자를 대
상으로 하는 목요급식에는 10~150여
명이 찾아오는데, 새 청진 공사를 하
던 2002년과 매년 여름 기온 25도를 빼
고 15년째 세우는 것이다.

한편, 2003년 입당한 새 성찬은 그

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입선작으
로 선정됐다. 경산이 고령인 설계자
이은석(경희대 건축학과) 교수는
"교회라는 산정성, 전통의 형상을 버
리고 인간성과 자연성을 담고자 했다"
고 밝혔다. 새 건물은 1950년에
자어진 옛 예배당 건물과 나란히 한
마당을 쓰며 과거와 현재의 맥을 잇
고 있다. 올초 문화재청은 옛 예배당
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실사를
다녀갔다. 당시 예학생들이 목에 나
가 자갈을 띠어 나르고 남학생들이
수레로 큰 물을 저 날라 완성한 이 시
조 건물이 역사적 보존 가치를 인정
한 것이다.

박선영 기자



(2) 기독신문 2009년 10월 14일 기사

기독신문

제1743호

제1743호 (통권2083호)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목회현장

더 큰 섬김의 100년 준비한다

경산교회 100주년 … 민족복음화 저력 새 사역 원동력으로

2009년 9월 20일 경북 경산시 산부동 복현동에 서울교회로부터 분리해 세워진 삼복성교회 현재 '경산교회' 100세를 목사로운 아름으로 경산 지역 박근희를 위한 100년의 말씀집을 이루어왔다.

경산교회는 100년 역사를 지나면서 민족의 영육과 함께 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그고 작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박유의 영광을 일치 짐았다. 1911년 서울교회에서 경영하던 폐봉학교가 사람에 많이 모이는 경산 교회로 시설을 옮겨 신교회와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민족의 한길으로 폐교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 뿐아니라 1939년 폐교당에서 해방당 신축을 결정하고, 41년 석재를 구입해 기공식을 계획했다가 역시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몽사시키지 못했다. 42년 일제강점기로 경산교회의 풀과 유기 현금, 국방현금을 하기도 했으며, 43년에는 집회시간을 9~12시로 하고, 아간집에는 전폐되기도 했다.

이러한 역암에도 복음을 지켜온 경산교회는 광복 후 속원이던 아예당 간척을 50년 1월에 완공하였다. 이후 경산유리회 개관, 경상중·백령 중·사정원 등지에 화동주일학교 설립, 주일학교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한 곳에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경산교회. 경산교회가 지난 100년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사역의 100년이 될 것을 다짐하며 기념행사를 드리고 있다.

특히 1981년 3월에는 경산교회 유적들이 들어교류의 공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사회교육문화급상>honored을 수상했다.

경산교회는 지역섬김에도 열회를 보았다. 90년 경산사랑의집을 운영, 지역의 불우한 이로신을 위해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지난 2005년에는 지역여성센터 경산원예한증스를 축소하기도 했다.

경산교회는 건물 또한 자랑거리다. 1900년 1월에 지어진 서조례당과 2003년 새롭게 지은 예배당이 나란히 세워져 있어, 경산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만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배당당의 경우 지난 200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입선작으로 선정될 정도로 아름답게 디자인했다. 음해로 100주년을 맞은 경산교회는 '흔적도 말려온 100년, 섬김으로

밀려갈 100년' 이런 풋으로 교회와 지역, 민족과 세계를 사랑하고 살기是为了 고교기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다.

박세평 목사는 "한글 중심의 산양의 삶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복음을 전할 위해 이 큰 사역과 성장을 실현하는 경산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030-770-9020



제6절 맷는말

박세봉 목사는 부임하는 첫해 교회표어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시편 139:7~10)으로 정하여 2000년까지 이 표어를 이어갔다. 어느 시간 어디서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생활, 진실된 삶을 강조하듯해서 인상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을 긴장하게 하였다. 목회철학을 묻는 질문에는 말씀강해와 양육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신학 세우기, 건강한 신앙 함양, 건강한 교회구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사역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중요성과 절실성을 강조하여 태신자 전도운동에 집중적인 힘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목회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목요급식과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홈스쿨 사업도 이어나갔다. 선교와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의 전환으로 진행중이다.

박세봉 목사는 경산교회에 부임한지 10년 8개월 12일째인 2009년 12월 13일 주일설교를 끝으로 주일에 모인 많은 성도들의 환송가운데 경산교회를 떠나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깊은 신학연구의 길로 떠났다.

박세봉 목사는 말씀중심의 삶을 바탕으로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큰 섬김과 사역을 실천할 경산교회가 되도록 힘을 기울이는 뜻 깊은 교회설립100주년을 맞는 사역자의 영광도 누렸다.

[편집후기]

경산교회 100년사를 마치면서…

이로서 경산교회 100년사를 마치면서 경산교회가 앞날에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성막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성전처럼 영생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교회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사도행전 2장의 하루에 삼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 만인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가슴속에 이러한 꿈을 안고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

경산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설립당시의 장소가 100년을 지난 오늘까지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통존중과 보수적이다. 또한 안정적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 하였다. 늘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진취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새롭게 거듭나야…….

교회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사명, 은사, 역사 사랑, 뚜렷한 교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누군가가 말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로서는 만용을 부렸는가 보다…….



② 권사

이옥련, 박정옥, 신순길, 김 얼, 김분준은 1987년 11월 26일에 제2대 권사로 취임하였다. 이옥련 권사는 1996년 5월 15일에 시무 중 별세하였다. 박정옥 권사는 1998년 11월 27일 정년 은퇴하였고 김 얼 권사는 1993년 12월 31일 정년 은퇴하였다.

이정화, 정외숙, 석금주, 황덕영, 김우한은 1992년 10월 8일에 제3대 권사로 취임하였다. 이정화 권사는 1998년 11월 27일에 석금주 권사는 1994년 4월 28일에 황덕영 권사와 김우한 권사는 1996년 12월 29일에 정년 은퇴하였다.

강정윤, 정숙기, 이경수, 윤영오는 1994년 4월 28일에 제4대 권사로 취임하였다.

배주이, 김혜순은 1998년 11월 27일에 제5대 권사로 취임하였다.

③ 협동권사

신외숙, 서금희는 1987년 4월 26일 협동권사로 임명 받았다.²⁴⁴

김봉조는 1987년에 대구제일교회에서 권사로 취임하여 1991년에 정년 은퇴 후 1992년 1월에 경산교회 협동권사로 취임하여 1992년 12월 31일까지 시무하였다.

이위선은 1992년부터 2004년 3월 23일까지 협동권사로 시무하였다.

정성조는 1983년 11월 20일에 경산제일교회에서 권사로 취임하고 경산교회로 이명하여 1998년 11월 서울로 이사 갈 때까지 협동권사로 시무하였다.

④ 명예권사

명예권사는 다년간 교회를 위해 봉사한 서리집사 가운데서 임명하였다. 이위분, 이계향, 이희주, 박분남, 정연조, 서외조, 이용선은 1994년 1월부터 경산교회 명예권사로 임명받았다.

244 경산교회 당회, “제605회 정기당회록” (1987. 4. 26).



거의 매일같이 사기편찬실에 들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챙겨주고 퇴근 시간에는 집에까지 차를 태워주고 그러면서 시간을 빼앗아 방해(?)도 하는 신동욱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경산교회 100년사” 컴퓨터 봉사자 박수영 선생, 토요일 휴일반납 미안하기 그지없소…….

“경산교회 100년사” 컴퓨터 봉사하는 김은정 집사, 가정에서 늘 수고하고 때때로 사기편찬실에서 컴퓨터 봉사에 열중하는데 밖에서 놀던 박현아 양(초등 4학년) 박상민군(초등 2학년) 귀여운 아들, 딸이 오면 달래서 내어보내 작업 계속, 컴퓨터 작업 뿐 아니라 인쇄 출판에 박식, 알고 보니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논문 작성, 인쇄소 출입 전력자, 감탄할 뿐…….

60세 가까운 박득숙 여전도사님, 사기편찬실과 교역자실을 오가며 동작이 소녀같이 재빠르니……. 아무튼 그 동안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교회 방송실장 박영태 집사님의 방송실 영상 협조, 송진욱 집사님의 사진 촬영, 정경례 집사님의 초창기 교회당 그리기 등 정말 감사합니다.

초창기의 자료사진 태부족, 부디 후배들이여. 역사의식을 갖고 지금부터 200년사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기록하지 못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자료가 더 보강되어 더욱 능력 있는 후배를 통하여 110년사, 혹은 150년사, 200년사가 더 충실하게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고 나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 살 롬!

정주경